

Smart Choice Best Care

인하대병원

2012 0708

Vol. 94

연중기획_ 암! 함께 이겨내요_ 암시리즈6 혈액암 | Hello 닥터_ 혈액종양내과 김철수 교수 Medical point_ 혈액암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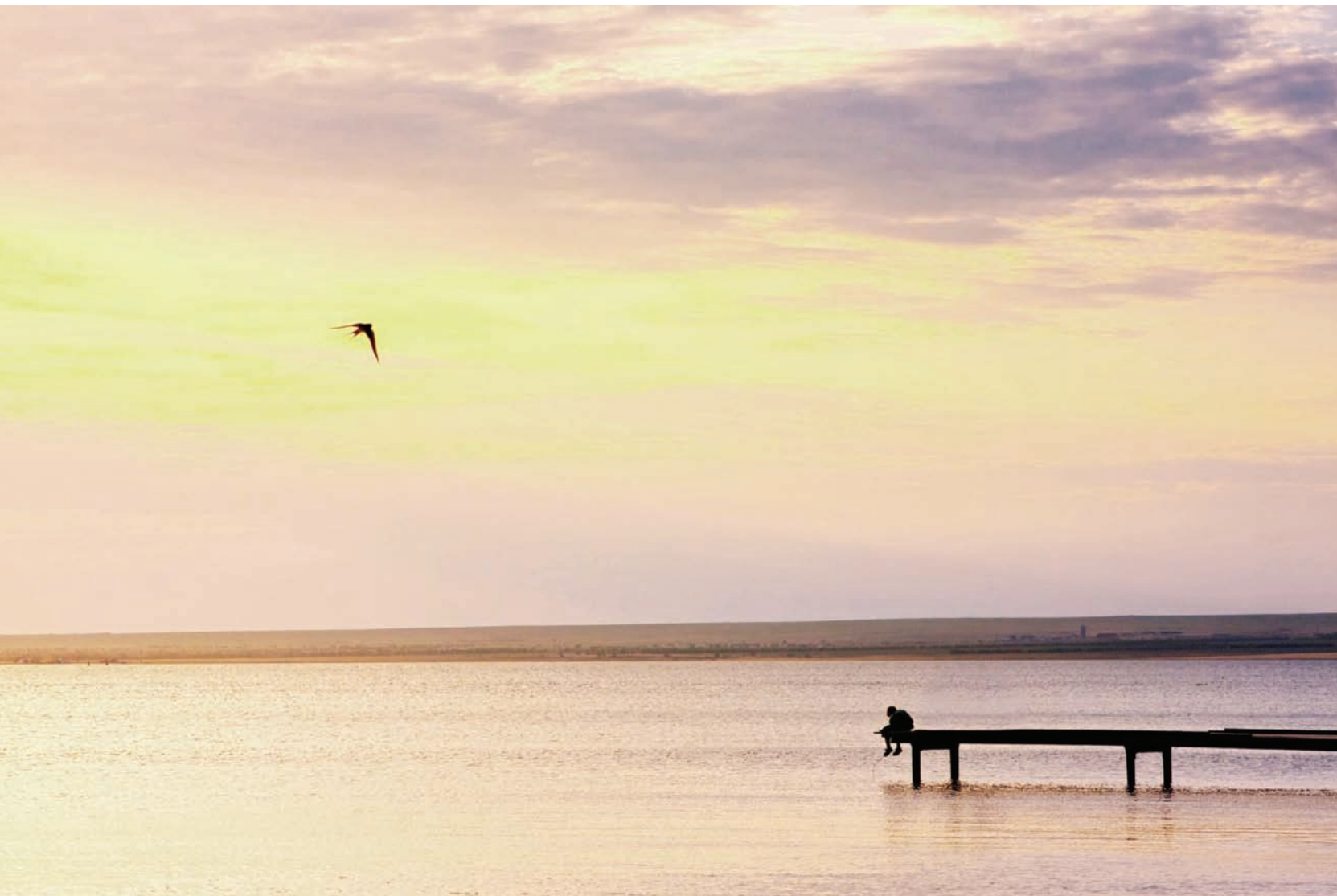


영혼 속에 살짝 걸터앉아 있는 희망

희망은 우리의 영혼 속에 살짝 걸터앉아 있는 한 마리 새와 같습니다.
행복하고 기쁠 때는 잊고 살지만, 마음이 아플 때, 절망할 때 어느덧 곁에 와 손을 잡습니다.
희망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거나 간절히 원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상처에 새살이 나오듯, 죽은 가지에 새순이 돋아나듯, 희망은 절로 생기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할 때, 가만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기울여보세요.
한 마리 작은 새가 속삭입니다. “아니, 괜찮을 거야, 이게 끝이야. 넌 해낼 수 있어.”
그칠 줄 모르고 속삭입니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우리가 삶에서 공짜로 누리는 제일 멋진 축복입니다.

장영희_ 「생일」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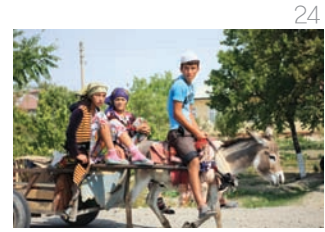




06



18



24

인하대병원

Jul
+
Aug 2012 Vol.94

건강 한걸음

04 INHA 에세이 마음과 마음을 잇는 희망의 소리

연중기획_ 암! 함께 이겨내요_ 암시리즈 6 혈액암

06 Hello 닥터 혈액종양내과 김철수 교수

09 Medical point 혈액암이란?

10 Health touch 뇌졸중

12 여름철 안과질환

14 반측안면경련(안면경련)

사랑 두걸음

16 Special people 신사의 품격 4인 4색

18 어디까지 가봤니 인천 용진 '대이작도'

22 모르면 지는거다 우리가 모르는 IOC 위원의 모든 것

나눔 세걸음

24 Today INHA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 & MOU 체결

28 베스트 스마일 이은미 / 외래간호팀 산부인과 외래 양혜림 / 특수간호팀 7병동

29 인하쉽표 열정은 나이를 잊게 만든다

30 희망천사 릴레이 '참의료실천단'

32 특특 약물상담 백일해 유행! 깜빡하지 말아야 할 예방접종!

34 협력병원 탐방 미래제일산부인과의원

INHA NEWS

35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38 Info desk 홍보영상 / 파랑새 소식

무료공개강좌 / 발전기금



표지_ 김병중 作 - 생명의 노래 | 어과 |

마음과 마음을 잇는 희망의 소리

해마다 10월 4일에는 간호사들이 1004가 된다.

늘 간호사는 환자 곁에서 천사였지만

이날은 병원을 찾는 모든 고객에게

우리는 의료적 천사뿐만 아니라

감성적 천사가 된다.

(글_유미애 / 간호지원팀 암진료지원 간호단위책임자)



위로와 공감만으로도 통증이 줄어드는 기적~ 따뜻한 손길 위에 천사가 내려앉다

인하대병원에서는 병원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당뇨검사, 혈압 측정, 풍선 아트를 이용한 봉사 등 100day 행사를 준비하던 중 조금은 색다르게해보자는 의견으로 암 상담을 함께 하기로하였다. 1층 로비 오픈된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암과 건강상담을 잘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과 일반인들도 함께할 수 있는 쉬운 면서도 유익한 프로그램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최신의 교육자료, 암관련 정보 책자, 유용한 자료 등 여러가지준비를하였다

내가 근무하는 암진료상담실은 2010년9월 암환자 및 가족, 일반인을 대상으로 암상담 및 암관련 진료와 교육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개소하였다. 암환자 진료와 교육을 10년 가까이 하던 내게도 암진료상담실은 새롭고 어려운 일로, 날마다 나를 당황하게 했고 많은 암환자와 가족의 고통으로 날마다 눈시울을 적셔야 했으며 해결해 주지 못하는 답답함에 가슴 한켠은 늘 아리고 무거워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100day행사는 나에게 큰 선물을 주었다.

1층 로비 여러사람들이 혼잡하게 왔다갔다하고 다소 소란한 분위기의 상담 부스를 기웃거리던 50대 중반의 한 여자가 울음을 터트리며 서 계셨다. "선생님, 지금 상담하신 내용이 너무도 저랑 똑같아서요. 제가 너무 아파요,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왜 아픈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5년을 통증에 시달리지만 의사도 가족도 모두 이제는 관심도 없고, 제가 정신병자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녀의 오른쪽손가락은 변형되어 있었으며 양쪽손, 무릎, 허리 등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병원을 찾아 진단만 받고 약도 1주일 정도만 먹다가 증상 호전이 없으면 임의로 중지하고 또 다른 병원, 또 다른 병원을 전전했다. 나는 제일 먼저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으며 조용한 장소로 이동하여 그녀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호소하는 고통을 들어주고 위로하고 공감할 의료인이었으며 그런 관계로 맺어진 신뢰가 있는 의료인의 권고에 따라 약을 복용하고 꾸준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상태가 필요했다. 추후 그녀는 류마티스내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감소한 통증과 되찾은 소박한 일상을 이야기하며 고마움을 표현했으나 그 순간 가장 고마운 사람은 나로 나타났다. 나의 가치, 나의 소명, 그리고 인간에 대한 고마움이 큰 감사로 밀려왔다.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어쩌면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른다.

잘 가르쳐야 하고 잘 설명해야 하고 주시를 잘 놓아야 하고, 정확한 근거에 맞춰 간호를 수행해야 하고, 의사의 처방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해야 하고, 늘 본인의 판단에 옳고 그름을 평가받아야 하는..... 모두 맞는 말이다. 나도 그런 상황에 늘 놓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요즘 암환자를 보면서 그들이 내게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에 나는 원칙이나 정확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의 가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진정한 공감이며 그들을 잡아 주는 따뜻한 손길,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교감이라는 것을.....

김철수 교수

혈액종양내과

대화상대로 찾아주고, 소리쳐 부르면 '거기' 서 있을게다

김철수 교수를 만나기로 한 곳은 '암센터' 다. 공간의 여백에서 여유가 느껴지고 두 팔을 벌려 안아주듯 타원형으로 배열된 레드계열 소파는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병원이라는 느낌보다는 '휴식'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 (글_ 이정희 자유기교가 사진_ man a view studio)

요즘하루 일과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하루가 마무리 된다. 여러 곳에서 질환에 대한 자문이 많이 와서 일일이 답해주고, 증상으로 의심되는 병명을 진단해 주다 보면 자정을 넘기는 일은 다반사다. 최근에 와서는 특히 러시아 쪽에서 문의가 많다.

외국인 의료관광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일까?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은 세계에 뒤지지 않으며 의료비는 상대적으로 싼 편이라고 김 교수는 말한다. 우리나라의 의료시설과 수준 높은 의료진, 경쟁력 있는 가격 등은 외국인들에게 큰 매력이다. 의료서비스 면이나 수준은 뛰어나면서 의료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큰 장점이다.

2004년 베트남에서 온 환자를 이식 수술한 일이 있다. 환자의 이모가 한국으로 유학을 온 경우인데 수소문 끝에 찾아왔다며 인하대 병원으로 나를 찾아 왔다. 물론 수술은 성공했고, 4년이 지난 2008년도 검사 결과도 역시 좋았다. 최근에는 러시아,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에서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고 지리적 특성에 유리한 우리 인하대병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의료수준을 인정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인천지역 최초로 조직형반일치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성공 했는데?

최근 성공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은 순수한 인하대병원의 결과물이라고 자부한다. 이식수술에 필수조건이었던 조직형 일치 기증자가 없었다더라도 부모로부터의 조직형 반일치 동종모혈모세포 이식술의 수행능력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기증자가 없는 이식이 절실한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다.

혈액종양내과는?

일단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혈액에 질병이 생기는 모든 경우를 진료한다. 가장 쉬운 예가 백혈병이다. 또 암에 대한 내과적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중증환자인 만큼 협진체계는 아주 중요하다. 항암제는 암세포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항암제의 독성 때문에 골수가 망가지기 때문에 종양내과와 밀접한 협진 속에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혈액종양내과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스승님 때문이다. "김예희 교수는 한국 의사로는 최초로 미국에서 암 전문의의 정식적인 수련을 받은 분이다. 스승님은 걸어다니는 텍스트북이었던

Profile

김철수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의학석사학위와 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문분야는 혈액학과 종양학이며, 현재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과장, 암센터 소장 및 대한조혈모세포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 교수의 최상의 연구실은 책 뿐이다.

고, 환자 제일 우선주의로 항상 눈높이를 환자에게 갖으셨던 분이 다. 난 그분에게서 '사이언스' 의 진리를 깨달았다. 지식만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 사고로 종양내과에서 완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합리적인 사고로 환자를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의사는 자기의 직업을 천직으로 여겨야 하고 환자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면 치료도, 보상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다.

환자로 봐야 한다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난 환자와 첫 진료 시간에 정말 별걸 다 묻는다. 직업, 친분관계, 경제적 여건 등 말하기 구차한 것까지 시시콜콜 한 것까지 말이다. 환자를 치료할 때 신체만 갖고 치료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환경을 알아야 치료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 우리 병원은 인천지역에서 어려운 중증 환자에 대한 배려는 최고라고 자부한다. 그래서 나는 스티브 잡스 보다 빌 게이츠를 닮고 싶다.

빌 게이츠의 어떤 부분인가?

그는 기업과 인간을 같이 생각한다. 순수한 마음이 이기는 세상이다. 기업의 목적이 '소비자의 행복' 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 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우선 고려하면서 뛰어난 의술을 펼쳐야 한다. 도공이 자신의 도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깨는 정신처럼 우리도 완벽을 기하려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거 같다.

그렇다면 환자 진료 시에도 뭔가 다른 것이 있을 듯싶다

중증환자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항문 수치 검사를 꼭 하는 편이다. 위장관암, 복막 파손, 전립선암 등에서의 미세한 병변을 인간의 손으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혹 CT에서 안 보여 지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기계라고 해서 오차가 없지는 않다. 기계도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오감과 기계의 정밀함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선택에 만족하는가?

의학이란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흥미로운 학문이다. 인간은 바

암센터 · 골수이식센터

Cancer Center · BMT Center



암 환자의 완치를 꿈꾸는 공간, 센터 앞에 당당히 서리라.

인간은 우주다. 매일 우주를 본다는 것은 축복이라 생각한다. 나에게 허락된 재능을 돌려 주는 것이 내 역할이다. 뭔가를 더 하겠다는 욕심보다 지금 온 힘을 다하고 싶다.

로 우주다.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것이다. 내 몸도 나의 소유가 아니고 자연의 일부이다. 그러니 자신의 건강을 잘 보살피고 언젠가 자연으로 반납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살아 있음의 기적을 도와주는 역할을 의사가 하는 것이니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

중증 환자를 볼 때 안타까움은 없는가?

모든 의사들이 마찬가지 마음일 것이다. 정말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백번을 말해도 중요하다. 1/3은 예방으로, 1/3은 조기발견으로 완치할 수 있다. 문제는 나머지 1/3이다. 사실 마지막에 해당되는 1/3은 자신의 운명인 셈이다. 얼마 전 러시아인이 위궤양이 있었는데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1년 뒤 우리 병원으로 와서 검사한 결과 위암으로 판정이 났다. 아마 러시아에서 조직 검사를 했다면 조기발견할 수 있었을 거다.

스무살, 청춘인 그때와 지금의 나는?

이제는 몸의 기능이 젊지 않다. 순식간에 달려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거다. 노인들을 이해하고 그 심정을 알게 된 거 같다. 난 다분히 신체혹사형 스타일이다. 그래도 다행히 유전자 덕에 건강한 체력을 갖지 않았나 생각한다. 부모님께 감사하다. 나의 어머니도 80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동안(?) 외모와 체력을 갖고 계시다.

아내와 두 아들.....

가족은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바쁜 나를 이해해 주는 아내가 고맙다. 큰아들이 나의 길을 따라 의사가 되어주기를 바랐는데 매일 바쁜 거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것 같이라며 상경대학으로 진학했다. 경제적으로는 나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나보다 훨씬 바쁜 것 같을 때 내가 놀리기도 한다.

생각지 않게 둘째 아들이 의대에 진학했다. 의료봉사를 다니는데 간혹 나를 불러 도움을 청하면 한걸음에 달려가서 아들과 함께 진료한다.

에필로그

10년이 지나도록 나에게 골수이식 수술을 하고 완치한 환자가 해마다 꽃을 보내준다. 이런 보람과 힘든 병명을 받고 날 믿고 따라와 주는 환자들을 볼 때 더 에너지가 나고 소명감이 생긴다. 나는 환자들에게 의사라고 느껴지기보다 대화상대로 인정받는 인간이고 싶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난 의사가운을 입지 않고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 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외쳐 부를 때 '거기 서있을게다.'

자신조차 완전한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는 겸손함과 신께서 주신 의술이라는 능력을 분명히 되돌려주고 싶어 하는 자연주의적 의사 김 교수이다.

|연중기획| 암, 함께 이겨내요 \ 암시리즈 6 혈액암

2011년 9/10월호-유방암, 11/12월호-대장암 2012년 1/2월호-소아암, 3/4월호-위암, 5/6월호-간암, 7/8월호-혈액암, 9/10월호-폐암, 11/12월호-갑상선암
2013년 1/2월호-자궁난소암

민감한 혈액암

**약물요법으로 80% 완치 가능한
병으로 탈바꿈**

(글_ 김철수 교수 / 혈액종양내과)

혈액암의 대표적인 질환은 백혈병이다.

백혈병이란 백혈구의 암이며 암세포가 혈액에서 돌아다닐 때를 일컫는다. 백혈구중 골수구의 암이면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부르고 림프구의 암이면 림프성 백혈병이라고 부른다. 갑자기 발생하면 급성 천천히 진행하면 만성백혈병이다. 골수종은 백혈구중 형질세포의 암이며 백혈병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암세포가 주로 골수에 존재하나 때로는 혈액으로 돌아다닐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형질세포백혈병이라고 칭한다. 림프종의 특징은 림프절 종대이며 대부분 만져질 수 있어 고형암으로도 분류되거나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의 암이기 때문에 혈액암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에 따라서는 림프종 암세포가 혈액으로 쏟아져 나오며 이때는 림프성 백혈병이라고 불려야 한다. 혈액암은 종류에 따라 질병의 생물학적 특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최적의 약물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히 진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급성 림프성 백혈병은 중추신경으로 잘 전이하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급성 림프성 백혈병과는 달리 사이타빈이라는 약제에 민감하다.

혈액암 중 백혈병은 암세포가 혈액을 따라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진단 시점에서 이미 전신에 파종된 진행암이다. 골수종도 대부분 뼈 전체에 파종된 진행암이며 림프종은 간혹 국소적인 질환으로서 발견될 수 있으나 대부분 전신적인 진행암이다. 따라서 전신적 질환에 대한 전신적 치료인 약물요법이 혈액암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수술 방식선 그리고 약물요법 모두가 동원되어야 하는 고형암의 치료와 대비되는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다. 고형암의 약물치료는 혈액암의 약물치료에서 사용되는 원리를 그대로 사용한다.

혈액암은 고형암에 비하여 약물치료에 훨씬 민감하다. 아무리 진행된 병기라 하더라도 약물요법만으로 소아 백혈병과 (소아와 성인을 막론한) 호즈킨 림프종의 80% 이상이 완치된다. 예전에 가장 예후가 불량하였던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FAB 분류상 M3)은 ATRA라고 불리는 분자적 표적치료제에 힘입어 지금은 80% 이상에서 완치된다. 골수이식의 등장으로 성인 급성백혈병과 상당수 림프종 환자의 절반이상이 완치된다. 반면 고형암 중 약물요법 만으로 절반 이상의 완치가 가능한 진행암은 생식세포종과 임신성 용모암 뿐이다.

21세기에 들어서자마자 의학계를 강타한 약은 글리벡(이후 등장한 타시그나 또는 스프라이셀)과 같은 분자표적치료제이다. 예전에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골수이식이 유일한 완치방법이었다. 그러나 골수이식을 하지 않더라도 글리벡을 계속 복용함으로써 90% 이상의 환자가 생존 가능하며 지금도 새로운 약제가 계속 등장하고 있어 조만간 이 암은 완전히 정복될 것으로 보인다. 혈액암에 대한 여러 분자표적제는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효과가 입증된 약제로서 림프종의 치료에 사용되는 말테라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분자표적제는 점차 고형암의 치료에도 확산되고 있다.

혈액암중 백혈병과 림프종에서는 새로운 약제와 개선된 골수이식술로 인하여 완치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치료의 개선은 완벽하다는 것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또한 골수종과 림프종 일부의 경우 새로운 약제와 골수이식에 힘입어 비록 생존기간이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아직은 완치가 힘들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새로운 표적의 발견, 새로운 표적치료제의 개발, 면역기능의 강화, 골수이식술의 개선 등 여러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골수이식술은 병든 골수를 고용량의 약물요법을 통하여 없앤 후 새로운 골수를 이식하는 기술이다. 타인의 골수를 이용하면 동종이식이라 부르고 자신의 골수를 이용하면 자가이식이라고 부른다. 동종이식은 자가이식과는 달리 이식후 이식된 세포가 항암효과를 나타내나 반면 이식연관 사망률이 높다. 이는 이식편대 숙주반응이라는 면역반응 때문이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환자화 골수 기증자간의 조직적합성 항원이 일치하여야 한다. 종종 조직적합성 항원이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기 힘든 경우가 있다. 부모자식간의 이식이 가능하다면 기증자 찾기가 너무 수월하지만 조직적합성 항원이 절반이나 다른 부모자식간의 동종이식술에 성공한 병원은 세계적으로 드물다. 조직적합성 항원이 부분적으로나마 일치하는 기증자조차도 없는 절실한 환자를 위하여 본원 골수이식센터는 부모자식간의 동종이식을 시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난도 시술에서 계속 개가를 올리고 있다. 이미 국내 최초로 외국인 환자의 골수이식술에 성공한 본원 골수이식센터는 인하대병원의 가장 큰 자랑이다.

*문의: 암센터 ☎032-890-2580 / 혈액종양내과 ☎032-890-2219

뇌졸중에 대한 노변담화

우리가 뇌졸중을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뇌졸중은 예상 못한 시기에 갑자기 생기고 한번 발생하면 회복이 힘들고 심한 경우 죽을 수도 있지만 후유증이 심한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뇌졸중은 회복이 힘들다는 점 때문에 예방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글_ 박희권 교수)



인터넷을 찾아보면 뇌졸중에 대한 많은 정보로 넘쳐난다. 필자가 가끔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주로 위험인자에 대한 내용이나 검사 방법과 가격, 또는 효과가 의문시되는 약물, 기기에 대한 치료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 많은 정보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오히려 혼동만 더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기서는 외래에서 자주 받는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 위주로 노변담화처럼 편하게 이야기해 볼까 한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분들의 시춘이 내 친척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을 것이다. 현재 단일 장기 질환으로 따지면 사망률 1위의 질환이다. 뇌졸중 환자의 대부분이 죽지 않고 오랜 기간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 뇌졸중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의 수는 더 많을 것이다.



박희권 교수 | 신경과
•전문분야 :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a s t r o k e



이렇게 무서운 뇌졸중을 설명함에 있어서 먼저 용어부터 이야기해 드려야 할 것 같다. 뇌졸중, 중풍, 뇌출혈, 뇌경색, 동맥경화, 뇌동맥류.....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것이다. 다 비슷한 단어들일까? 아쉽게도 이 단어들은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사보험을 들었다면 이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전부터 민간에서 갑자기 편마비 증상이 생기는 경우 중풍(中風)으로 불려 왔다. 중(中)풍은 원래 의미가 심한 질환이라는 뜻과 명중(命中)에서 같이 '맞는다'는 뜻으로 갑자기 발생한다는 뜻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 갑자기 발생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현대에 들어 많이 발견되면서 정의가 애매하게 되고 혼동되어서, 뇌혈관 질환에 의한 경우에는 뇌졸중(腦卒中)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영어로는 'stroke'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발생한다는 점에서 영어의 stroke와 한자의 뇌졸중의 '중(中)'은 같은 뜻을 나타낸다 하겠다.



뇌혈관 질환에서 혈관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터지거나 막히는 경우가 생기는데, 터지는 경우 뇌출혈(腦出血)이라 하고 막히는 경우에 뇌경색(腦梗塞)이라고 한다. 이러한 질환은 대부분 혈관 안에 노폐물, 기름기 등이 쌓이는 것과 연관이 깊은데 이를 동맥경화(動脈硬化)라고 한다. 동맥의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러 오르는 경우에는 뇌동맥류라고 하며 이것이 터지는 경우에는 뇌출혈 중에서도 예후가 무척 나쁘다. 예전 우리나라에서는 뇌출혈이 많았으나 서구화되면서 현재는 뇌경색이 2~3배 이상 많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뇌졸중, 중풍, 뇌출혈을 동일시 생각해서 뇌출혈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실제 뇌졸중이 생겼을 경우, 지원을 못 받을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진다. 혹시 사보험이 들어있다면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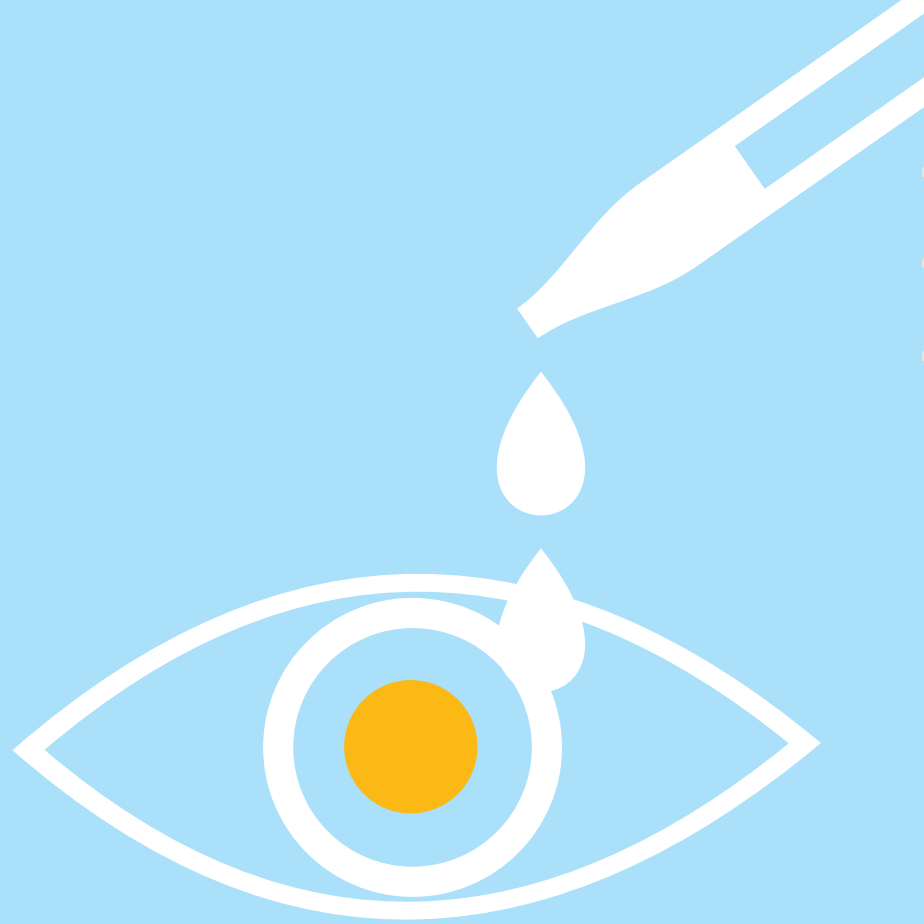
우리가 뇌졸중을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뇌졸중은 예상 못한 시기에 갑자기 생기고 한 번 발생하면 회복이 힘들고 심한 경우 죽을 수도 있지만 후유증이 심한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뇌졸중은 회복이 힘들다는 점 때문에 예방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 대부분의 뇌졸중이 동맥경화와 연관성이 깊으므로 이와 연관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과도한 음주 등을 평상시에 확인하고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 받는 질문으로 음주량과 좋은 음식을 많이 물어보신다. 음주는 소주 기준으로 하루 2잔 이내로 먹는 것을 권한다. 일부 술 종류에서 적당량의 음주가 뇌졸중의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는 하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뇌졸중에 대해서 한식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적으며 채식을 많이 할 수 있어 좋은 음식으로 생각된다. 다만 국내 나트륨 섭취량은 외국에 비해 2~3배나 많고 이는 고혈압과 연관성이 깊으므로 짜거나 매운 음식을 피하고 국물을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최근 의학 기술의 발달로 뇌경색의 경우, 증상 발생 6시간 이내에 대형병원에 방문하면 많은 분들에게서 혈관을 재개통하는 약물치료나 시술을 받고 증상이 거의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빨리 방문할수록 성공확률은 매우 높아진다. 이에 갑자기 발생한 언어 장애, 팔다리 마비 증상, 어지럼증 또는 두통의 경우에는 대형 병원에 수 시간 내 오실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란다.

*문의 : 신경과 ☎ 032-890-3860

건강한 여름을 나는 올바른 눈 관리

올해는 무더운 날씨가 일찍 시작되고 볼래지수가 높은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눈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_ 김나래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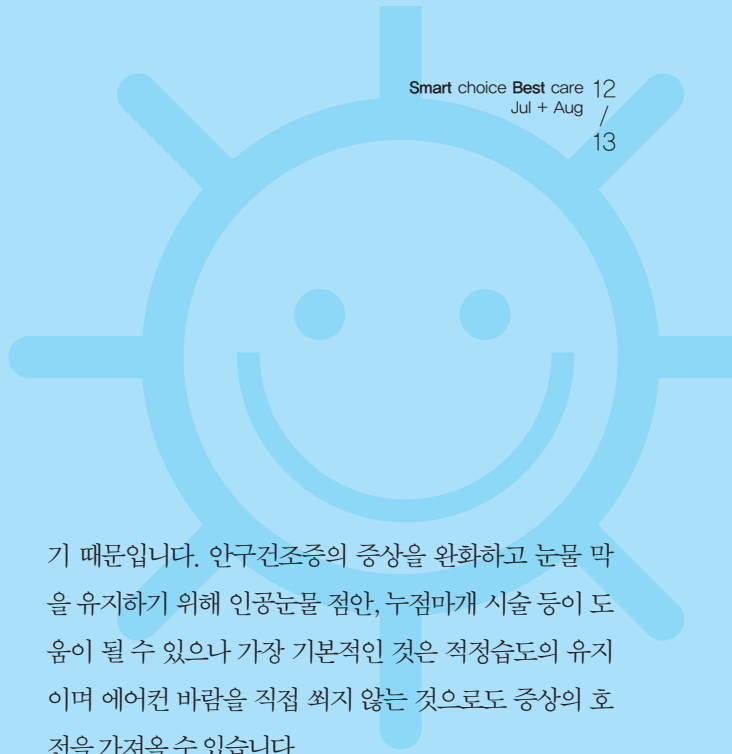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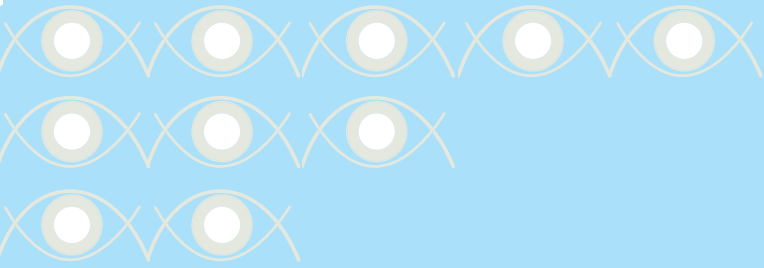
깨끗하게 비누로 one
손을 씻으세요

여름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번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막염 환자가 늘어납니다. 흔히 유행성 눈병으로 불리는 유행성각결막염이나 아폴로눈병이라 불리는 급성출혈성결막염은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손잡이, 의자, 수건 등 전염성 결막염에 걸린 환자가 눈을 만진 손으로 만진 모든 것으로부터 전염이 가능합니다.

특정적으로 충혈, 이물감, 눈곱, 눈물 흘림 등이 나타나며 처음 일주일 정도는 점점 증상이 심해집니다. 대부분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완치되나 간혹 합병증으로 각막에 혼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치료약은 아직까지 없고 대중적인 요법만 있으므로 외출 후 항상 비누로 깨끗이 손을 닦고, 함부로 눈을 만지지 않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본인이 전염성 결막염에 걸린 경우에는 전염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는 것을 피해야 하고, 눈병에 걸린 환자의 가족들은 수건을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김나래 교수 | 안과
•전문분야 : 녹내장, 백내장



자외선 차단용 안경이나 선글라스 착용하세요 two

여름에는 햇빛 특히 자외선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피부를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외선차단제를 피부에 바르듯이, 자외선에 민감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용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해야 합니다. 눈이 자외선에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백내장, 검열반, 의상편, 황반변성 등의 질병이 증가할 수 있으며, 라식이나 라섹 등의 근시굴절교정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에서는 각막혼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한 햇빛은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각막화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므로 햇빛이 강한 여름 특히 낮시간에는 자외선 차단용 안경 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어컨 바람 피하세요 three

에어컨 바람을 직접 눈에 쬐게 되면 안구건조증이 심해집니다. 또한 직접 쬐지 않더라도 실내 온도가 내려가서 공기가 건조해집니다. 건조한 환경에서 빨래가 잘 마르듯이 우리 눈의 눈물 막도 빠르게 증발하게 됩니다.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면 안구 표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히려 눈물이 많이 나는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겨울에는 주로 고령의 환자분들이 외출 시 찬바람에 눈물이 난다는 증상을 호소하지만 여름에는 젊은 분들도 눈물이 잘 난다고 하는데 이는 대부분 직장 사무실에 에어컨을 강하게 작동하여 눈물 막이 마르고 안구 표면이 건조해지

기 때문입니다. 안구건조증의 증상을 완화하고 눈물 막을 유지하기 위해 인공눈물 점안, 누점마개 시술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적정습도의 유지이며 에어컨 바람을 직접 쬐지 않는 것으로도 증상의 호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멀리하세요 four

요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컴퓨터 모니터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며 일을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시간 장소를 불문하고 길거리, 지하철, 버스 등에서 쉼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눈을 사용하여 집중하는 일을 하면 무의식적으로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들게 되며 이로 인해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눈의 조절로 인해 눈 피로, 두통, 안통, 시력감소 등이 발생하며, 노안을 빨리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으로 안과를 내원하신 환자분들은 진료를 기다리는 대기실에서도 핸드폰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장시간 모니터를 볼 때에는 중간중간 휴식 시간을 가지고,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3미터 이상의 물체나 풍경에 초점을 맞추어 눈 피로를 풀어주어야 하며, 눈을 의식적으로라도 자주 깜빡여서 눈물 막이 마르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상 여름철 눈건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한반도의 아열대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 예전보다 여름이 길어졌고 습도도 높습니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올바른 눈관리 습관으로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문의: 안과 ☎ 032-890-2400



증상은 얼굴, 원인은 뇌! 윗 눈꺼풀의 떨림으로 시작

‘반측안면경련’이란 얼굴의 좌측이나 우측 중 한쪽에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경련(떨림, 연속)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반측안면경련증, 안면경련증, 반얼굴연축, 반얼굴떨림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글_ 김은영 교수)

눈꺼풀 주변에서 주로 시작하는 떨림

반측안면경련은 대부분 30~60세에 주로 발생하나 20대에서도 발병하고 노년층에서도 증상이 시작되기도 한다. 성별에 따른 발병빈도의 뚜렷한 차이는 없다. 증상은 대부분 아래 또는 윗눈꺼풀의 떨림(경련)으로 시작된다. 드물게는 한쪽 입 주위의 떨림으로 증상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증상은 매일 나타나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떨림의 지속시간도

수초에서 수 시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환자들에게 물어보면 떨림은 불규칙하지만 하루도 편한 날은 없었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날이 지날 수록 떨림의 강도 및 발생횟수가 점차 심해지며 위아래 눈꺼풀에 동시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한쪽 눈이 부분적으로 감기는 증상이 나타난다. 증상이 더 심해지면 같은 쪽 입 주위 근육에도 경련이 발생하게 되어 한쪽 눈이 감김과 동시에 입꼬리가 위로 떨러 올라가면서 입이 쉴룩 거리는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증상이 심해지면 휘파람을 분다든지 음식을 먹을 때 웃을 때에도 자기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쪽 눈이 감기는 증상이 뚜렷해진다.

‘혹시 안면경련?’ 증상을 구별하는 방법

증상 특징 중 하나는 긴장할 때, 낯선 사람과 만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고 대인관계의 지장을 초래하며, 우울감에 빠지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반측안면경련과 유사한 증상을 일



김은영 교수 | 신경외과
•전문분야 :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으키는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먼저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하거나 수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눈꺼풀경련이 있다. 이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충분히 자면 대부분 수일 내로 저절로 사라진다. 안검경련이라는 질환도 비슷한 증상을 보이나, 안검경련의 경우는 반측안면경련과 달리 양측눈꺼풀에 경련이 동시에 나타나 양측 눈이 동시에 감기는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안면마비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안면마비 후 경련도 매우 유사한 증상을 보이나, 이는 안면마비발생 후 안면마비의 회복에 이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반측안면경련 증상은 '얼굴', 하지만 원인은 '뇌' 속

반측안면경련의 증상은 얼굴에 나타나지만 원인은 뇌 속에 있다. 한쪽 얼굴의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안면신경은 뇌에서 시작되며 귀속 뼈를 통과하여 얼굴 근육까지 도달하게 된다. 뇌혈관이 뇌에서 시작되는 안면신경에 유달리 가까이 위치하여 안면신경을 압박하게 되면 안면경련을 일으키게 된다. 드물게는 뇌종양이 안면신경을 압박하여 증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안면신경은 전깃줄로 비교할 수 있다. 안면신경은 전깃줄처럼 무수한 신경가닥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각의 신경가닥을 통해서 전기가 흐르며 이 전기적 흐름이 얼굴 근육을 움직이게 된다. 정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전기의 흐름을 조절하여 움직이고 싶은 안면근육만을 움직일 수 있다. 반측안면경련환자의 경우 뇌혈관에 의한 안면신경 압박이 점차 심해지면 안면신경 내의 신경가닥들이 점차 손상을 받게 되어 합선현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서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한쪽 얼굴에 경련이 발생하게 된다

반측안면경련의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특징적인 증상유무의 확인이다. 특징적인 증상과 임상 경과의 확인

으로도 대부분 진단이 가능하다. 그다음 단계의 검사로 뇌신경 및 뇌혈관 MRI를 시행하여 뇌혈관이 뇌에서 시작되는 안면신경을 압박하는지를 확인하고, 드문 경우이지만 뇌종양에 의한 것은 아닌지도 확인하게 된다. 추가적인 검사로 근전도 및 안면신경전도검사 등을 시행한다.

초기에는 약물로 증상 개선, 심할 경우 미세감압술 등 적극적 치료 필요

눈꺼풀에만 경미한 경련이 있는 초기에는 신경안정제, 경련억제제 등의 약물복용이 도움이 된다. 물론 약을 복용한다고 증상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완치시킬 수는 없지만 증상의 일시적 개선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증상이 진행되어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가 되면 보톡스 주사치료와 미세혈관감압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보톡스주사치료'는 보톡스라는 신경독소를 경련이 있는 근육에 주사하여 일시적으로 안면근육마비를 유발시킴으로써 경련을 보이지 않게 하는 치료이다. 완치를 목표로 하는 치료는 아니지만 2~4개월간 효과는 지속된다. 마비가 회복되면서 안면경련이 다시 나타나게 되므로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미세혈관감압술'은 안면경련증의 원인을 수술로 해결함으로써 영구적인 완치를 얻을 수 있는 치료이다. 어떤 질환이든 병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다면 완치 가능하며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우수한 치료법이다. 귀 후방의 머리만 조금 꺾고 전신마취하에서 귀후방을 약 5~6cm 정도 절개하고 두개골을 연후 안면신경을 압박하는 뇌혈관을 찾아서 분리시켜 주고 테플론이라는 수술 스펀지를 이용하여 뇌혈관이 더 이상 압박하지 않도록 해주는 수술이다. 반측안면경련을 원인으로 접근하여 완치시킬 수 있는 유일한 치료법으로 수술완치율은 90~95% 정도로 매우 높다. *문의 : 신경외과 ☎ 032-890-2370



이제부터 건강 관리가 중요해요!!
2012. 7. 21
장동건

연기연륜이 무색할 정도로 현장에서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는 배우 장동건과 메시지를 담은 그의 사진



우정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꽃 중년 4인방. 진짜 우정으로 평생 가길~

신사의 품격, 꽃 중년의 노련한 건강관리

‘신사의 품격’은 시청률 20%를 돌파하며 시청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고 있고, 남성들에게 성공한 전문직의 모습을 선보이며 일반 ‘직장인의 로망’이 되고 있는 신사의 품격의 4인방. 현실에서는 배나오고 상상 눈치보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 찌든 삶인 40대 중년에게 그건 판타지일지도 모르겠다. 현실에서 꽃중년 아이콘으로 등극된 4인방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무결점 바다라인 콜라병 몸매로 안구청정을 선사한 신공 여신 김하늘의 비법은 무엇일까? (글_ 이정희 자유기고가 사진제공_ 3 Hw com.)

신사의 품격

도진의 발포정 비타민 - 건축사무소 소장은 스트레스가 많은 길로~

신사의 품격의 김도진은 사무실이든 집이든 생수가 있는 곳이면 한 알씩 넣어 마시는 음료가 있다. 물에 녹여 복용하는 발포정 형태의 비타민으로 체내 흡수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비타민B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뇌 기능 활성화와 함께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과 피로회복을 돕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축사무소 소장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김도진처럼 일반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비타민이다. 실제로 김도진 역을 연기하는 장동건은 촬영 중간에 체력보충과 집중력에 좋은 영양 미네랄과 피부에 좋은 비타민을 섞은 주사를 투척했다는 내용이 블로그에 올라오기도 했다. 김도진과 장동건은 똑같이 비타민 좋아하는 길로~.

장동건은 건축가로서 프로페셔널한 포스가 넘쳐나는 카리스마, 저절로 뿜어져 나오는 섹시한 남성미, 미워할 수 없는 초강력 너스레와 능청스러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저돌적인 로맨틱함 등 거침없는 매력은 아이돌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보이고 있다.

꽃중년 4인방 실제로 모두 야구 즐겨

드라마에서는 최윤과 김태산은 야구를 좋아한다. 이정록은 야구와는 거리가 멀고 김도진은 사랑하는 여자 서이수 때문에 극 중 야구단이 블루켓에 입단 하게된다. 실제 4인방은 어떤 운동을 하고 있을까?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뒤지 않는 ‘동안’에 등극한 김민중은 등산, 스키 등 운동을 좋아하고 야구는 평소에 즐기는 운동이다.



18회의 최고의 1분은 직장 동료들을 레스토랑으로 초대할 장면으로 31.1%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박현주(남현주 분) 선생은 서이수를 부러워하며 “자신의 남편은 장동건을 닮았다”고 말해 깨알 웃음을 선사했다.

극중 태산의 캐릭터와 닮은 김수로는 현실에서도 야구를 즐기고 연예인 야구단 그레이트 소속이다. “죽을래? 사랑해! 안겨!” 라는 대사를 스스로 최고의 대사라고 말한 것처럼 순정마초인 태산 역의 김수로는 야구뿐 아니라 복싱 검도 등 운동을 좋아한다. 또 자신의 트위터에서 8월부터 몸을 혹~가게 만들어서 12월에 파카 입을 때 런닝구를 입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야구에 홀릭 된 사람은 바로 장동건이다. 김승우를 단장으로 하여 황정민, 지진희, 현빈, 권상우, 조인성 등의 미남 배우로 구성된 연예인 야구단 ‘플레이보이즈’에 장동건이 있다. 이종혁도 플레이보이즈 연예인 야구단으로 장동건과 함께한 지 6~7년이 된다. 실제의 장동건은 시속 120km의 빠른 볼을 자랑하는 마무리 투수로 활약하고 있는데 평소 손목 강화를 위해 운동용 스냅 볼을 휴대한다.

체력 특급, 콜라병 몸매의 보디라인 ‘신품 여신’

여자야구 심판으로 나오는 김하늘은 실제 생활기록부에 특급 체력으로 기록된 것이 공개되어 깜짝 놀라게 했다. 윤리여신에 이어 특급 체력 여신까지 등극한 셈. 운동으로 군더더기 하나 없는 무결점 몸매의 소유자 김하늘은 극중에서 이슬이슬한 하의 실종 원피스와 핑크 스트랩 샌들 차림으로 나타나 9등신 미인의 자태를 드러냈다. 매끄럽고 탄탄한 몸매가 한층 돋보이는 늘씬한 S라인을 한껏 뽐내며 보고만 있어도 안구 정화가 저절로 되는 콜라병 몸 보디라인은 ‘신품 여신’이다. 잦은 촬영과 밤샘 작업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녀는 틈틈이 몸을 챙긴다. 오랜 시간 촬영장에 있으려면 튼튼한 체력이 따라줘야 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14종의 유기농 채소와 과일, 9종의 필수 아미노산이 함유된 멀티 비타민을 챙긴다. 지난 7월 13일 김하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새벽 3시40분. 천둥번개 쏟아지는 빗소리 들으셨어요? 우리 팀은 지금도 촬영 중입니다. 하지만 힘내는 걸로”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해서 뽐내는 스키즐 속에서도 체력관리 잘하며 활기차게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품격 있는 체력이 밑바탕이 되는 신사, 숙녀의 품격, 이런저런 이유로 ‘신품 양이’를 이끌어 낼 수밖에 없다. 실제 그들은 마흔이 넘어도 배 나오지 않은 20대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처럼 꽃 중년이 될 수 없는 변명, 핑계만 대지 말고 부러우면 따라하는 거다.



안구 정화가 저절로 되는 콜라병 보디라인의 ‘신품 여인 김하늘’

푸른 바다 위 파라다이스를 꿈꾸시나요?

바다 한가운데 놓인 모래톱에 섰다. 발 아래로 해무가 지나고 바람이 지나는 자리. 그 모래톱의 끝은 어디든 바다였다.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고,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모래의 섬. 오로지 파도 철썹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그곳을 사람들은 언젠가부터 풀등이라 불렀다. 상상해 보시라. 푸른 바다 한가운데 마당처럼 넓고 편평하게 솟은 모래톱을. 아니, 하루 두 차례 솟았다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모래섬을. 올 여름, 몽환적인 여행을 꿈꾸는 그대라면 주저 말고 풀등에서 보시라.

(글/사진_ 이시목 여행작가)

부아산에 오르면 웅진반도 섬들이 한눈에

폴등에 서기 위해 바다를 건넜다. 좀 더 정확하게는 대이작도로 가는 배 안에 몸을 실었다. 대이작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에 딸린 작은 섬으로, 영화 <섬마을 선생님>의 무대로 유명한 곳이다. 그래서일까, 대이작도에 서면 많은 이들이 이미자의 노래 <섬마을 선생님>부터 흥얼거린다.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철새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그 애절한 노래 덕분인지 대이작도는 오랫동안 아련한 첫사랑을 추억케 하는 섬이었다. 그랬던 곳이 지난 2009년 KBS 예능프로그램인 1박 2일을 통해 소개된 이후, 신비의 섬으로 각광 받기 시작했다. 그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폴등이 있고 부아산이 있다.

먼저 부아산에 올랐다. 해발 159m의 부아산은 낮지만 대이작도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천혜의 바다 전망대다. 목조계단과 구름다리를 지나 산 정상에 오르면 자월도와 승봉도, 덕적도, 굴업도 등 웅진반도의 크고 작은 섬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마치 누군가 푸르고 맑은 천 하나가 있어서 섬을 통째로 에두른 느낌이랄까. 그만큼 작은 섬이 푸름으로 차고 넘쳤다. 이뿐일까. 해질 무렵이나 해 뜰 무렵, 부아산에 올라 보시라. 해질 무렵이면 천지를 불사를 듯 휘황한 노을이 소이작도를 휘감고, 해 뜰 무렵이면 바다를 이룬 구름 위로 말간 해가 솟구쳐 오르니, 누구라도 부아산에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 일이다.



하지만 아무래도 부아산의 제1경은 풀등일 테다. 풀등은 바다 속에 숨어 있던 모래톱의 등성이 썰물 때마다 드러난다고 해서 부르는 이름. 마을 주민들은 갈치 새끼인 풀치 떼들이 푸른 바다를 길게 휘어가는 모양새라고 해서 '풀치' 라고도 부르는데, 부아산에 오르면 그 형태와 생김이 한눈에 담긴다. 정말로 반짝이는 은빛 풀치 떼가 푸른 바다를 휘저어 가는 듯한 모래톱이 신기루처럼 불쑥 솟아 그 면적을 조금씩 넓혀 가는 모습이 신비롭기 그지없다. 그러니 부아산에 서거든 반드시 바다 저편 풀등에도 시선을 두어라.

풀등, 바다 한가운데 있는 신비의 모래섬

물이 빠져, 바다로 나갔다. 대이작도의 신기루, 풀등에 서기 위해서였다. 밀물 때는 보이지 않던 물이 완전히 빠지는 사리 때면 드러나는 길이 7km, 1km²(30만여 평)의 광활한 모래톱 풀등. 풀등은 한 번 드러나면 5~6시간 동안 그 형태가 지속되는데, 모래 위엔 언제나 고운 물결무늬가 남는다. 운이 좋으면 모래섬을 하얗게 뒤덮은 해무와도 조우할 수 있다. 바람을 따라 다가서고 물러서기를 반복하는 해무. 상상해 보시라, 사면에서 출렁거리는 바닷물과 모래섬을 하얗게 뒤덮은 해무라니……. 참으로 몽환적인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풀등의 풍경을 두고 누군가는 '국내에서는 만나기 힘든 진귀한 사막의 풍경' 이라고 예찬했다. 때문일까? 보고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을 진정시키기 힘든 장엄한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그런 풀등은 바다 생물의 삶터이기도 했다. '비슬비슬' 발을 디딜 때마다 서해비단고둥이 발바닥을 간질였고, 바다와 맞닿은 모래톱 어디쯤에서는 숭어 치어들이 '통통' 튀었다. 희귀 고유종인 범개를 비롯한 큰구슬우렁이, 비단조개 등도 풀등을 지키며 살고 있으니 이곳

1. 사막을 연상케하는 몽환적인 느낌의 풀등 풍경
2. 대이작도 가는 뱃길을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갈매기 떼
3. 부아산 정상 부근에 있는 구름다리(현수교)
4. 대이작도에 비해 작아 '작을 소' 자가 이름에 붙은 소이작도 전경
5. 해 질녘, 부아산 정상에서 바라본 일몰 풍경





Smart choice Best care 20
Jul + Aug /
21

에선 누구든 천천히 거닐며 조개를 잡아 관찰하는 재미를 누리 볼 일이다. 아니, 그저 타박 타박 걷는 것만으로도 족할 테다.

대이작도에는 풀등 외에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곳도 여러 곳이니 기억해 두자. 풀등으로 가는 배가 운항되는 작은풀안해수욕장부터 큰풀안해수욕장, 목장불해수욕장, 계남해수욕장 등 대부분 모래가 곱고 바다 경사가 완만해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해수욕에 제격이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크지 않아 서해임에도 하루 종일 해수욕을 즐길 수 있다.

시간이 넉넉하다면 섬을 한 바퀴 걸어 돌아보는 것도 좋겠다. 계남해수욕장이 있는 계남마을에는 옛 계남분교가 있는데, 마당 한쪽에 영화 <섬마을 선생님>의 무대임을 알려주는 안 내비가 세워져 있다. 바다를 마당으로 둔 폐교라 그 정취가 남달라, 잊고 지냈던 첫사랑의 추억이 떠오를지도 모르겠다.

travel TIP

1박 2일 패밀리 투어 추천 일정

1day 대이작도 도착 - 점심식사 - 배를 타고 풀등 상륙 후 조개잡이 및 해수욕 - 부아산 전망대에서 휴식하며 대이작도 전경 및 일몰 감상 - 저녁식사 - 숙박

2day 아침식사 - 대이작도 자유여행(작은풀안해수욕장~큰풀안해수욕장~목장불해수욕장~계남해수욕장~영화 <섬마을 선생님> 촬영지) - 점심식사 - 바다낚시 체험 및 해수욕 - 대이작도 출발

교통

대이작도행 배는 두 곳에서 출발한다.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우리고속웨리 032-887-2891~3, 대부해운 032-887-6669)과 대부도 방아머리선착장(대부해운 032-886-7813~4). 각각 1시간 20분, 1시간 40분 정도가 걸린다. 섬 안에서는 도보나 민박집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선착장에서 가장 먼 마을 끝까지 도보로 1시간 정도 거리(4km)다. 풀등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최장 3시간이며, 풀등행 배는 작은풀안해수욕장에서 운항한다. 휴가철에는 1인당 1만 원 정도의 운임으로 수시 운항하지만, 비수기 평일에는 배를 대절해야 한다. 대절료는 최소 10만 원 이상이다.

* 인천연안여객터미널 <http://domicerry.or.kr>

* 대부해운 <http://www.daebuhw.com>

숙박

장굴마을에 테라스의 아침(010-9930-7840), 푸른언덕펜션(011-334-4708), 우리펜션(010-6274-8971), 큰나무펜션(010-3335-9866) 등 펜션형 민박이 많으며, 계남마을에는 계남민박(032-834-9872), 해변펜션(011-789-7954), 오렌지민박(010-7738-5725) 등이 있고, 큰풀안해수욕장에는 큰풀안해수욕장민박(010-8299-6900), 선착장 부근 큰마을에는 코코비치(010-4285-2552) 같은 펜션이 있다.

* 이작도 홈페이지(<http://www.myijakdo.com>) 참고

맛집

큰말 선착장 부근의 이작횃집(032-834-9944)에서 생선회, 꽃게탕, 매운탕, 계장백반, 회덮밥 등을 맛볼 수 있고, 작은풀안해수욕장 인근에 자리한 풀등펜션(032-834-6161)에서 가정식 백반을 맛볼 수 있다. 민박집이나 펜션에서도 미리 부탁하면 식사를 차려준다.



스포츠계의 별을 달다

2012 런던올림픽 개막이 불과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던 지난 7월 초 김연아 선수의 긴급 기자회견이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렸다. 이날 관심을 끈 사안은 김연아 선수가 은퇴를 미루는 대신 소치동계올림픽에서 다시 한 번 금메달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배경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즉, 'IOC 위원에 대한 꿈' 이 가장 큰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였다.

(글_ 김수정 자유기고가 사진제공_ 대한체육회)

>>>> 김연아 선수는 “소치올림픽에서의 현역 은퇴는 IOC 선수위원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하면서 IOC 선수위원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꿈을 키웠다” 고 말했다.

IOC 선수위원이 되기 위해선 국가올림픽위원회(NOC : National Olympic Committee)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선수위원을 보유한 NOC는 추가로 추천할 수 없다. 따라서 김연아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선수위원에 뽑힌 문대성의 임기 8년이 끝나는 2016년 이후부터 후보 추천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IOC가 규정한 후보 자격으로 '가장 최근 올림픽에 참가한 자, 혹은 선거가 치러지는 올림픽에 출전한 자' 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소치동계올림픽의 출전이 필수인 것이다. 그런데 김연아만 IOC 선수위원의 뜻을 가진 것만은 아니다. 올림픽 5회 출전이라는 위업을 달성한 남자 핸드볼의 윤경신, 우리의 마린보이 박태환, 금메달 윙크로 강한 인상을 남겼던 배드민턴의 이용대 같은 쟁쟁한 선수들이 IOC 선수위원에 대한 포부를 밝힌 바 있어 추천권을 가진 대한체육회의 고민이 매우 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그렇다면 IOC 위원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IOC 위원의 모습은 아마도 '쉴' 을 외친 고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거나 이번에 '평창' 의 이름을 호명한 자크 로게 현 IOC 위원장일 것이다. 이처럼 IOC 위원의 가장 큰 임무는 IOC 총회를 통해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하고 올림픽 종목의 가감과 발전제도의 결이다.





>>>> 우선 IOC 위원은 크게 네 그룹으로 나뉜다. 올림픽 운동에 헌신한 개인 중 IOC 총회에서 선출하는 위원 70명과 국제경기단체 회장 중 15명, 각국 올림픽위원회 회장 중 15명, 올림픽 메달리스트 중에서 뽑는 선수위원 15명 등 총 115명이다. 현재는 11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유럽이 26개국 46명으로 전체 IOC 위원 중 41%를 점유하고 있고, 영국의 앤 공주, 모나코의 앨버트 왕자, 우리나라의 이진희 삼성 회장 등은 선출위원 그룹이다. 김연아 선수가 노리는 선수위원의 자리는 올림픽 출전선수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투표를 실시해 선출되는 자리로 올림픽 메달리스트만이 도전할 수 있다.

>>>> IOC 위원은 무급인 명예직이지만 일단 대접부터 다르다. 무비자 최우선 입국허가 대상일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국가원수급 의전 대상이 된다. IOC 위원이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 그가 묵는 호텔에는 IOC 깃발이 게양대에 걸리게 된다. 이는 IOC 위원들을 각국 소속이 아닌 IOC에서 각국으로 파견된 대사로 보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스포츠계를 대표하여 외교 활동을 펼친다는 자부심은 IOC 위원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일 것이다.

>>>>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에도 IOC 위원들의 행보는 바쁘다. 각 종목 우승자들에게 메달을 수여하고 자국의 선수들을 응원한다. 여기서 재미난 사실 하나. 우리에게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근대5종'이라는 종목이 있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인 쿠베르탱 남작이 고대 올림픽에서 가장 인기 종목이었던 5종 경기를 고심 끝에 보완해 고안해 낸 경기로, 근대5종의 우승자에게 IOC 위원장이 직접 메달을 수여하고 포옹을 하는 영광을 안겨준다. 쿠베르탱 남작에 관련된 전통은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IOC 총회의 공식 언어가 프랑스어라는 점이다. 보통 국제회의의 제1언어로는 영어가 쓰이지만 IOC 총회에서는 프랑스어가 제1언어이고 영어가 그 뒤를 따른다. 이유는 바로 쿠베르탱 남작이 프랑스인이기 때문이다.

>>>> 2012년 런던올림픽이 한창이다.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다양한 경기를 뛰는 선수들의 승부와 스포츠맨십에 전 세계가 울고 웃는다. 이렇듯 거대한 축제의 한가운데 IOC가 있다. IOC 위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고 올림픽을 본다면 당신은 올림픽의 재미를 두 배로 느끼게 될 것이다.





안과 김나래 교수



심장내과 우성일 교수



마취통증의학과 이홍식 교수(인하의료사회봉사 단장)

의료봉사로 시작 된 '인하 -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출발



새벽 5시부터 기다리는 환자들

여름의 한낮 기온이 50도까지 오르는 악조건에서도, 새벽부터 와서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의 줄이 끊없이 늘어서도, 선진의료로 나눈다는 사명감과 희생정신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우리병원은 지난 3년간 우즈베키스탄으로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해왔다.

Subject 1

낮 기온 50도, 의료 손길의 가슴 온도 99도

(글_ 권대규 교수 / 정형외과)

김태희가 발을 맨다던 그곳, 우즈베키스탄!!

자밀라, 구잘 등 '미녀들의 수다' 라는 TV 프로그램의 미녀들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다녀온 이동주 교수님께서 아침 회의시간에 '그곳 환자들 중 상당수가 선천성 질환이니 권 교수가 다녀오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하셔서 봉사단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해외 의료봉사를 다녀본 적이 없었던 저로서는 기쁜 맘과 도전하는 정신으로 적극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7월 8일 이홍식 단장님 이하 10여 명의 봉사팀은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약 7시간의 비행 뒤에 우즈베크에 도착 하니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예전에는 우리 나라도 이렇게 다른 선진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왔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하고, 큰 도움을 주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하게 되더라고요. 공항을 나서면서 2가지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보다 훨씬 더운 날씨였습니다. 비록 습도가 낮다고는 하나 한낮에는 최고 기온이 50도 이상 올라간다고 하니 대단하죠. 저희가 저녁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더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차가 매우 많다는 것인데,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7~80%가 마티즈, 다마스 등 대우 자동차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제품을 만나게 되면 뿌듯하던데, 그곳에서는 정말 가슴이 벅찰 정도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김태희처럼 예쁜 아가씨들이 발을 맨 정도로 미인들이 많다는 소문을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엔 미인들은 러시아, 일본 및 한국으로 돈 벌러 떠나고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갔기에 별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

치료 시기를 놓쳐 손을 쓸 수 없는 안타까운 환자들...

숙소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바로 다음날부터 진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즈베크는 한국과 4시간의 시차가 있다고 하여 우습게 생각했다가 적응부족으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진료는 수도인 타슈켄트에서 2일간, 그리고 대한항공이 자리 잡고 있는 나보이라는 곳에서 2일간 진행되었습니다. 타슈켄트에서는 첫날은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설립한 클리닉에서 하루, 과거 강제 이주당하셨던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아리랑 요양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었는데, 진료를 보면서 신기했던 것은 환자들이 모두 자신의 의료 기록들이 적혀 있는 노트를 들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러시아어나 우즈베키스탄어로 적혀있어 알아볼 수는 없었



정형외과 권대규 교수



소아청소년과 홍영진 교수

마음을 짠하게 하는 환어들

Uzbekistan

medical services

지만 환자의 과거력을 파악하는데 좋겠다 싶었습니다. 나보이에서의 진료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머무는 건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진료 보는 곳이 주택가와 많이 떨어져 있어서 과연 환자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9시부터 진료인데 새벽 5시부터 와서 기다리는 환자들이 있어 놀랐습니다. 그렇게 멀리서 새벽부터 진료를 보기 위해 오는 환자들을 보니 정말 뭐 하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즈벡은 예전부터 외국으로부터 원조를 많이 받아온 나라라 받는 것에 익숙하고 외부 사람을 잘 안 믿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 상주하시는 분 말씀이 저희 병원 의료봉사에는 해마다 환자가 늘어가는 것이 봉사단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돌아간 환자들이 자꾸 소문을 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수많은 진료를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과 교수님들께서도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처음에 치료를 잘 했으면 좋았을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쳐서 평생 다리를 절게 된 환자들, 앞을 못 보게 된 환자들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의료진들 사이에는 1년에 한번 이렇게 와서 약 주고 진료 보는 것이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일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겠다는 발전적인 얘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의료봉사라 하여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치료를 볼 줄 알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편하고 즐겁게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같이 봉사를 다녀오신 봉사팀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즈베키스탄으로 출발하기 전 의료봉사단의 힘찬 구호 '헛탕~~~'



인하 -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하여 인하대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써, 의료전반적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번 MOU는 이 프로젝트 중 의료진 교육을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Subject 2

우즈베키스탄 내의 성공적인 의료지원 사업 - MOU 프로젝트

(글_ 김필립 / 교육수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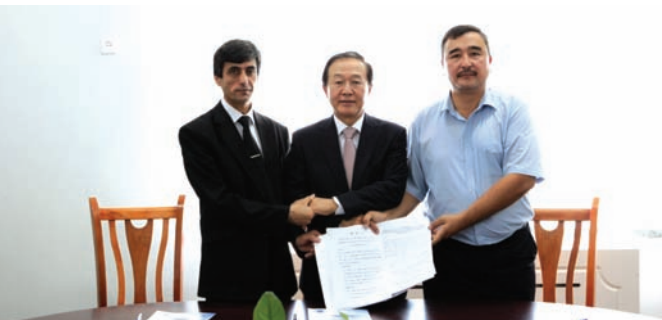
인하 -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의 첫 행보로써, 인하대병원-타슈켄트 메디컬 아카데미-쏘글룸 아블로드 우촌재단(국가 모자보건복지재단)이 7월 7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메디컬 아카데미에서 상호 학술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체결을 위하여 인하대병원 박승림 원장이 의료봉사단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하여 본원과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동으로 협력하기로했다. 지난 3월 MOU를 맺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이수구 총재도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에 함께하였다.

인하 -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는 우즈베키스탄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하여 인하대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써, 우즈베키스탄 의료진 초청연수, 의료지원 사업 등 의료전반적 향상을 위한 것이다. 이번 MOU는 이 프로젝트 중 의료진 교육을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앞으로 타슈켄트 메디컬 아카데미의 의료진과 쏘글룸 아블로드 우촌 재단의 보건행정가들의 초청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한 학술 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같은 날 인하대병원은 우즈베키스탄 복지부 - 쏘글룸 아블로드 우촌재단과 우즈베키스탄 의료지원에 관하여 협약했던 2010년의 협력 MOU를 2017년까지 연장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폐쇄적인 정책의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성공적으로 의료지원 사업을 펼쳤으며, 2010년부터 3년간 꾸준히 의료봉사를 해온 노력을 우즈베크 정부에서 인정해 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박금수 진료부원장도 인하-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나보이 공항지역에 방문하여 나보이주 보건부 및 현지 의료기관을 둘러보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의료소외지역인 나보이 지역의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앞으로 인하 -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는 수도권 타슈켄트와 나보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우즈베키스탄 의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인하대병원이 앞장설 계획이다.



▲타슈켄트 메디컬 아카데미-쏘글룸 아블로드 우촌재단 MOU 체결



▲우즈베키스탄 복지부-쏘글룸 아블로드 우촌재단 MOU 연장체결



▲박금수 진료부원장 현지 의료기관 방문

‘치유’ 까지 선사하는 친절한 미소



오랫동안 여성암센터에 근무하다 몇 개월 전부터 산부인과 외래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은미 간호사는 부인과와 산모 분들의 진료접수, 수술상담 및 민원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부인과는 과의 특성상 다른 분들에게 선뜻 말하기 어려운 증상도 있고, 특히 산모 분들은 타 병원에서 아기가 안 좋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언행에 주의해서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성암센터의 오랜 근무경력 때문일까? 환자에대한 배려심이 남다르게 느껴진다. 대기실의 여성 환자 한 분은 볼때마다 한결같이 친절하다며 흐뭇한 미소를 보내주신다.

산부인과 환자분들이 아직은 본인을 어색해 할지도 모르지만 늘 해온 것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차분하지만 아무진 음성으로 답하는 이은미 간호사. 그녀가 있어 산부인과의 하루는 편안하다.

이은미 간호사 / 외래간호팀 산부인과 외래

7병동에 근무하는 양혜림 간호사는 산과와 부인과 환자들의 수술 및 치료에 관한 간호와 교육을 하고 있다. 환자들은 양혜림 간호사가 하도 밝고 씩씩해서 아프고 힘들어도 보고 있으면 힘이 난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어머니, 언니 같은 환자분들의 격려에 오히려 제가 힘을 얻지요. 감사드립니다.”

그녀만의 환한 미소를 보여준다. 오랜 기간 지켜본 한 입원환자분은 특히 수술을 마치고 당황하는 가족들이나 환자에게 어찌나 잘하는지 참 많이 감동을 받는다 고 전한다. 환자들의 요구에 바로바로 응대하는 모습과 바쁠수록 밝은 목소리로 웃으려고 노력한다는 양혜림 간호사. 그녀가 보여주는 미소와 세심한 배려로 환자와 가족들의 지친 마음은 치유된다.



양혜림 간호사 / 특수간호팀 7병동



길위에 꿈

열정은 나이를 잊게 만든다

(글_ 박창한)

6월 9일 토요일 때를 맞춘 듯 날씨도 화창하다.

인하대병원 내분비내과에서 매년 연례행사로 진행하는 ‘당노인 산행’을 올해도 어김없이 참가하였다. 아침 7시 10분쯤 당노내 분비센터에 들어서니 벌써 상당수의 회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일찍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병원 관계자들 그리고 간호사들이 산행회원이 들어오는 대로 혈압 측정이며, 혈당검사를 마친 뒤에 산행에 필요한 모자, 식수, 간식 등을 받고 버스 두 대에 올랐다. 근 일년여를 기다렸던 터라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레었다. 아침 7시 40분경 인하대병원을 출발하여 북한산 입구에 도착하는데 불과 40분 남짓 걸렸다. 매년 그렇듯이 차에서 모두 내려 일제히 준비운동을 한 후, 간단한 주의사항을 듣고 인솔자를 따라 산행을 시작했다. 고령의 회원들을 위해서 마치 둘레길 같이 가벼운 코스를 선택했다고 하니 세심히 배려하는 마음이 감사하다. 땀을 뻘뻘 흘리며 산행을 하다 정상에 이름 즈음해서 휴식을 취하며, 삼삼오오 둘러앉아 먹는 간식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신록의 계절 6월, 청소년 시절이었다면 시 한 수는 거뜬히 읊었으리라. 나뭇잎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며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 가끔 일렁이는 나뭇가지로 쏟아지는 햇살, 이름 모를 풀과 흙 내음, 이 모든 것들이 내 몸 안에 스며들었다. 이 얼마나 경이롭고도 고마운 현상인가!

정상에 올라 잠시 쉬었다가 하산 길을 재촉했다. 점점 시장기를 느끼니 산행은 확실히 건강한 공복감을 선사해 주나 보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잠겨 걷는 데, 옆을 스쳐 가는 회원 일행 중에 수년 전부터 친분을 쌓고 있던 분이 있다. 반가운 건강 안부를 서로 건넨다. “내년에 또 건강하게 뵙시다.”

북한산 주변에 산장처럼 아담하고 깨끗한 어느 음식점에서 산채비빔밥도 먹고, 인하대병원 직원들이 마련한 행운의 선물 뽑기도 하며 즐겁게 ‘당노인 산행’을 마쳤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같은 행사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람 좋고, 자연 좋고, 기분 좋고 그러면 당연히 건강이 좋아질 테니 말이다. 늘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는 인하대병원 의료진들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박창한 님은 7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개원 초부터 지금까지 인하대병원 내분비내과 ‘당노인 산행’ 회원으로 꾸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의료실천단(이하 실천단)은, 2001년 빈곤가정의 환자들을 돕고자 뜻을 같이하는 의료인 20여 명이 모여서 출발한 모임이다. 출범 당시부터 단장을 맡고 있는 장정화 씨(42세)는 원래 임상병리사였다. 창립멤버들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의 전문 의료인들로, 장정화 단장을 비롯하여 현재 3명의 상근 멤버들은 모두 전문직을 버리고 의료봉사를 전문으로 하는 이 단체의 굵은 실무를 떠맡고 있다.

(글_ 권영선 / (사)희망배달본부 본부장)

건강은 누구든지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



창립 초기에는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무료진료를 다녔고 그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진료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목격했다. 간이 진료소에서 1차 진료가 끝난 뒤에 거동이 어려운 노인환자들을 가까운 병원과 연계하여 직접 모시고 다니는 후속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실천단은 이주근로자와 아동, 청소년의 치과진료, 상담치료에 역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유년기와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들의 보편적 예방과 진료에 집중을 둔다. 장정화 씨는 참의료실천단을 이렇게 소개한다. “빈곤으로 인해, 성장기 위생과 보건환경이 열악한 아동들이 많습니다. 매년 ‘치카푸카대작전’이라 해서 치과진료를 지원하고, 1회성 진료로 끝나지 않도록 학교와 인접한 지역 치과병원을 연계하여 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아동센터에 ‘공부방 주치의제도’를 정착시키는 ‘턱움과 키움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인천시에 제안한 ‘저소득 아동 주치의제도’는 참의료실천단의 정책 아이디어를 지자체에서 받아들인 사례로서, 남동구청은 올 하반기에 6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2006년 인천지역에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 인천지부’와 함께 ‘실천단’이 중심이 되어 국내 최초로 시도한 저소득 아동 치과진료 사업이 현재의

‘턱움과 키움사업’으로 성장해서 전국으로 확대되었다고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인천에서만 매년 치과진료와 영양제 등을 지원받는 아동이 평균 900명에 달한다. 사실, 실천단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치과진료는 대부분의 의료지원단체들이 잘 풀지 못하는 숙제이다. 빈곤가정의 환자들이 가장 지원받기 어려운 부분이 치과진료와 장기치료를 요하는 난치병들인데, 이 점에서 실천단의 성장기 아동을 위한 치과진료 사업은 단연 돋보인다. 그래서 치과진료 비용이나 단체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하는지 궁금해졌다. “상근자는 4명, 단원으로 참여하는 의료인들이 100명, 후원회원 300명이 도와주고 있죠. 치과진료는 건치 소속 치과 의사 20여 분이 무료로 참여해주고 있고요. 사실, 후원금만으론 단체를 유지하기에도 빠듯합니다. 활동의 자유를 위해 기업이나 기관들의 기부금 협찬은 일부러 받지 않고 있어요.” 장정화 씨에게 가장 큰 숙제를 물었다. “빈곤가정 아동들의 정서검사 결과 보면, 자아존중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고, 우울증과 산만함, 컴퓨터 중독 등이 심각해요. 비용도 많이 들고 치료기간도 긴 데다 보호자와 가정환경 등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어 치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서검사는 그나마 검사비만 지원해줄 뿐이어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과제가 가장



◀어린이건강교육에
참여한 봉사단원들



▶치과진료

▼2009년 9월 이주노동자건강센터 개소식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불소도포를 하는 모습



큰일입니다.”

아이가 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다니는데도 부모가 신경쓰지 않고, 하루에 한 번도 칫솔질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종종 있다며 장정화 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루하루 고단한 삶에 지친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현실의 한 단면일 뿐이다. 그래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일도 많다고 한다.

“처음, 가정방문을 하고서야 빈곤의 실태를 제대로 알 수 있었죠. 그전에는 가난한 아이들의 더러운 행색이 늘 마음에 걸렸는데 막상 가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초등학교 3년생이 1년생 동생을 씻기고 밥을 먹입니다. 집 밖에 있는 화장실은 곰팡이가 가득하고, 아버지에게 맞고 사는 데다 반지하에서 머리와 온몸에 이가 우글거리는 아이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는지... 저희 실천단이 10년 넘게 버텨올 수 있던 힘은 그분들의 사정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실천단은, 매주 일요일 부개동 '희망세상' 진료소를 개설하여 20여 명의 의료진이 이주근로자를 위해 무료진료 활동을 벌인다. 올해로 2년째로, 검사과정에서 암을 발견하기도 하고, 가을이면 무료로 독감 백신을 접종해준다. 또, '희망의 날개' 라고 해서 보건의료대학생(인하대, 경인여대, 재능대 간호학과 등) 160여 명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과 나눔' 이란 새로운 단체명으로 인천지역 민간의료지원

시스템의 중심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참의료실천단 장정화 씨의 바람이다. 9월 7일 창립기념일을 기점으로, 매월 1,000원의 후원금을 내는 CMS 회원을 1,004명 조직하고, '인천 만세' 를 의미하는 뜻에서 앞으로 10,003명의 후원회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간 의료인 중심의 봉사에서 앞으로는 일반시민과 함께 봉사하는 시스템 변화도 추구하고 있다.

“소외계층 문제는 빈부격차 외에도 대상연령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7세 미만의 아동과 엄마의 참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대상에 따라 지역별로 1차에서부터 3차 진료기관까지 자동으로 진료가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일에 사람들의 참여가 한 사람씩 늘어날 때보다 보람과 즐거움이 커진다는 장정화 씨.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다며 덧붙인 한마디. 참의료실천단의 10년 내공이 깃든 프로정신이 엿보였다.

“근데 저희에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3시간의 교육과정을 꼭 이수해주셔야 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경인방송 희망배달본부 ☎ 032-830-1004

*참의료실천단 www.cham911.or.kr

*장정화 (단장) ☎ 032-512-9111



백일해 유행! 깜빡하지 말아야 할 예방접종!

Q 최근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어서 예방접종을 하려고 합니다. 11세 아이가 DTaP 접종을 받은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접종해야 하나요? 그리고 성인도 예방접종이 필요한가요?

A 만 7세 이후에는 DTaP(DPT-3®) 접종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Td 백신(Td pur®)으로 모두 3회 접종을 실시하는데, 이 중 한 번은 Tdap(Adacel®)으로 접종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접종을 신속히 실시하고, 2차 접종은 1차 접종 4~6주후, 3차 접종은 2차 접종 6~12개월 후에 접종합니다. 국내에서는 영유아 시기에 DTaP(DPT-3®)을 6세까지 총 5번(기초 접종 3회, 추가접종 2회) 예방접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5번의 예방접종으로 획득된 면역력은 8년 동안 유지되고 14세 무렵이면 감소하여 만 10~12세 사이에 Tdap(Adacel®)이나 Td(Td pur®)로 6차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백일해는 청소년이나 성인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백일해에 걸린 청소년 및 성인이 유아를 감염시킬 수도 있으므로 18세 이상 성인이 Tdap(Adacel®)이나 Td(Td pur®) 접종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에는 Td 백신으로 3차에 걸쳐 접종을 실시하며, 이후 10년마다 1회 추가 접종합니다. 단, 이 중 한 번은 Tdap으로 접종합니다.



Q 수술이나 검사 전 와파린과 아스피린 등의 약은 며칠 전에 복용을 중단하며, 중단 후 언제쯤 다시 복용할 수 있나요?

A 수술 전 중단해야 하는 약물은 혈소판에 영향을 주어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로, 항응고제, 혈소판 응집 억제제, 혈류개선제 등이 있으며, 각각의 약물에 따라 중단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흔히 사용되는 항응고제인 와파린은 수술 4일 전에 중단할 것을 권장하는데, 복용 중단으로 인한 혈전 생성 가능성과 수술 중 출혈의 위험을 고려하여 중단 기간을 결정해야 하므로, 수술 전, 항응고제를 처방하신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지혈이 되었다면 12~24시간 후 다시 투여할 수 있습니다. 혈전 생성을 예방하기 위해 복용하는 혈소판 응집억제제인 아스피린과 플라빅스(clopidogrel)는 수술 5~10일 전부터 복용을 중단해야 하고, 수술 후 지혈이 되면 24시간 이후 또는 다음날부터 다시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그렌캡술(triflusal)은 수술 5일 전, 프레탈정(cilostazol)은 수술 4일 전 복용 중단이 권장됩니다. 흔히 사용되는 혈류개선제인 기넥신, 타나민과 같은 은행잎 추출물 약물은 수술 36시간 전에 중단해야 합니다. 이들 약물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므로 수술 전 복용 약물을 담당 의사나 약사, 간호사에게 꼭 알려야 합니다.

된다 된다 **희망**이 된다



우리아이 치아까지 지켜주는 무배당 LIG 희망플러스 자녀(태아)보험

내 아이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행복한 생각으로
가족의 행복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무배당 LIG 희망플러스 자녀(태아)보험

- ▶ 태아의 안전도, 노후의 건강도 든든하게 100세까지 보장가능
- ▶ 보험기간 연장을 통해 30세 이전 보험 만기시에도 100세까지 보장가능
- ▶ 출산위험, 어린이 디, 후유장애, 질병, 암, 골절 등 자녀의 모든 위험을 대비한 다양한 보장가능 (해당 특약 가입시)
- ▶ 만일의 경우 대비 부모사망시 유자녀 학자금 지급 (해당 특약 가입시)
- ▶ 다자녀가정 할인/출산할인 제도로 최고 5% 보험료 할인가능
- ▶ 영구치와 유치까지 보장하는 업계 최초 키즈덴탈보장 신설 (해당 특약 가입시)



보험가입 부가서비스

- ▶ 작명서비스(베이비네임스) **최고 80% 할인**
- ▶ 홈케어 서비스(인터파크 HM) **최고 66% 할인**
- ▶ 전국 박물관 및 미술관 **무료/할인 입장**

* 본 서비스는 당사 및 협력업체의 사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LIG 손해보험으로

일상에서 일생을까지!

희망파트너





미래제일산부인과의원
임재윤 원장

열달은 지켜주고, 출산의 축복된 그 날도 꼭 함께 합니다!

지난 5월 31일 임재윤, 김경선, 이희정 원장은 연수구 청학동에 미래제일산부인과를 개원하였다. 또한 부속으로 소아과와 산후조리원을 함께 오픈하였다. 여성을 위한 모든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며 행복한 임신, 축복된 출산을 함께 하겠다는 따뜻한 마음도 가득 담았다.



“연수구는 젊은 층 인구가 꽤 밀집되어 있는 곳이지요. 그런데 분만은 1곳만 담당하고 있어 산모들이 불편했을 겁니다. 저희는 모두 출산을 원칙으로 하는 정통 산부인과 진료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 탄생의 기쁨을 함께 하겠다는 세 원장의 다짐은 한결같다. 출산을 함께 하는 산부인과 의 개원은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니다. 특성상 언제 출산이 이루어질지 또 응급상황은 언제 생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인하대병원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것도 개원을 생각하는 임 원장에게 많이 힘이 되는 일이라. 응급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인하대병원으로 바로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며 특히 ‘의료인을 위한 일요 검진’은 아주 좋았다고 전한다.

가족분만은 기본, 르봐이에 분만은 원칙

일단 내원하게 되면 독립된 상담실에서 사전 진료 문진을 받게 된다. 예민한 진료인 만큼 적절한 진료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미래제일산부인과는 5층에서 임신, 출산, 부인과 질환의 진료, 검사, 수술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고, 6층은 산후조리원과 소아과를 두어 출산 후에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미래제일산부인과에서는 독립된 아늑한 대기실에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분만실 운영은 기본이다. 또한 세상에 나오는 태아를 위한 ‘르봐이에 분만’을 하는데 이는 선택이 아니고 모든 분만에 마땅히 적용해야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태아도 산모도 10달을 함께 한 의사의 손길을

“매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그 밝은 느낌이 행복이죠. 물론 출산이 모두 축복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임 원장은 신중하고 뒤집어 볼 줄 아는 김 원장을 파트너로 잘 만났다고 생각한다. 큰 시각에서 옳고 그름을 바라보는 시각이 좋단다. 세 원장이 똘똘 뭉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군더더기를 NO! 하는 ‘정통산부인과’를 목표로 열정과 도전을 함께 하기 때문이다. 임 원장은 직원들에게 환자들의 힘든 점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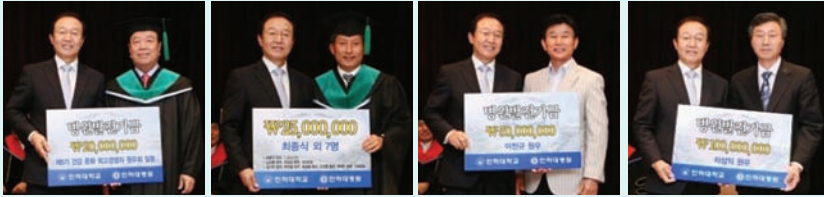
▼좌측부터 김경선, 이희정, 임재윤 원장



부한다. 그리고 자신은 직원들의 마음에 귀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때 완전한 진료 서비스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열달을 기다렸는데 막상 출산 당일 ‘함께 한 의사가 아니면 싫을 것 같은’ 산모의 마음을 읽어내는 임 원장이다. 미래제일산부인과의 인테리어는 화려하지 않지만 실용적이고, 조금 서투르고 부족한 시설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통 산부인과로서 연수구의 거점병원이 되겠다는 의료적 자신만은 눈부시리만큼 반짝인다.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 032-245-0101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제 5기 원우 및 선배 원우 병원발전기금 전달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제 5기 수료식 후 병원발전기금 전달식이 있었다. 5기 원우회에서 이천 만 원, 5기 최종식 원우 외 7명 이천오백만 원, 김용연 원우 백오십만 원, 박남원 원우 백오십만 원을 전달했으며, 3기 이천원 원우 오천만 원, 3기 차상의 원우가 일억 원을 약정했다.

JCI 재 인증을 위한 Mock Survey 성료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간 진행된 이번 Mock Survey는, 현재 본원이 하고 있는 Process를 그대로 수검 받으면서 문제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금번 Mock Survey를 통하여 JCI 재 인증 과정은 JCI Standard를 바탕으로 보다 질적인 관리가 병원 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종합적인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활동을 통하여 '환자와 직원이 안전한 병원'을 추구하는 본원의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다.

인하대병원, 인천 오피니언 리더들의 모임 제5기 건강 문화 최고 경영자과정 수료식 성료

7월 20일, 인하대병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진행된 5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5기 최종식 회장 등 총 56명의 원우가 과정을 수료함에 따라 230여 명의 원우가 배출되었다. 또한 인천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인천지역 리더들의 모임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향후 더욱 큰 발전가능



성과 잠재력을 지닌 인적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수료식과 더불어 원우들은 발전기금 기부를 통해 인하대병원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었다.

KIOST 부설 극지연구소 및 유타 - 인하 DDS와 효율적인 신약개발 공동연구를 위한 MOU 체결



7월 13일, 인하대병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부설 극지연구소 및 (재)유타 - 인하 DDS 및 신의료기술개발연구소와 함께 효율적인 신약 개발 공동연구를 위하여 상호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인하대병원과 유타 - 인하 DDS 연구소, 그리고 극지연구소는 본 협약을 바

탕으로 신약개발과 관련된 공동연구에 큰 힘을 얻게 되었으며, 세 기관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특히 인하대병원과 유타 - 인하 DDS 연구소는 극지연구소에서 보유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유효성평가, 제재화,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신약 개발을 위해 공동 협력할 계획이다.

글로벌 연구중심병원을 향한 유타 - 인하 DDS 연구소 국제 심포지엄 개최



6월 11일,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 볼룸관에서 '나노 의학의 최신 기술동향'을 주제로 '제6회 인하 나노 클리닉 심포지움' 및 '제4회 유타 - 인하 DDS 및 신 의료기술개발 공동연구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인하대병원 연구부와 (재) 유타 - 인하 DDS 및 신 의료기술개발 공동연구소, 국가지정 소화기질환 의료제품 유효성평가 서비스센터(NCEED)가 공동 주최하고, 지식경제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후원하여 개최되었다. 또한 이 날 심포지엄에는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유타대학교 김성완 석좌교수, 일본 고토대학 현승휴 교수 외 200명 이상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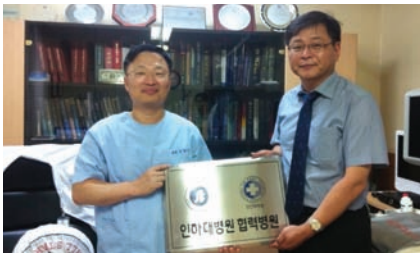
인하대병원 - 인천공항본부세관,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6월 19일, 인하대병원은 인천공항본부세관과 지역사회 공헌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상호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특히 지역 소외계층을 선정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세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민관이 협력한 사회공



현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의료기관과 정부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료의뢰 활성화를 위한 당진백병원과 협력병원 협약



7월 25일, 인하대병원은 당진백병원(충남 당진 소재)과 협력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을 통하여 진료의뢰를 활성화하고, 응급환자 및 중환자의 전원시스템을 구축함은 물론 서해권역 진료의뢰의 중심병원으로서 역할을 공고히 하게 되었다.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2012년도 우간다 의료봉사 및 말라리아 퇴치 사업' 발대식 성료



7월 24일, 인하대병원은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2012년도 우간다 의료봉사 및 말라리아 퇴치 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어린이재단 이재훈 회장 이하 재단 관계자와 인하대병원 봉사단장 손병관 의 학전문대학원장 이하 봉사단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의료캠프는 지난 2010년 시작된 5개년 사업으로, 올해 3년차를 맞게 되었다. 8월 11일(토)~19일(일), 8박 9일로 아프리카 우간다의 키유니 마을에서, 소아청소년과, 소화기내과, 내과 의료진을 중심으로 진료하며, 특히 인하대학교 기생충학교실의 김동수 교수는 현지의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총 지휘할 예정이다.

2012년도 화재안전 우수건물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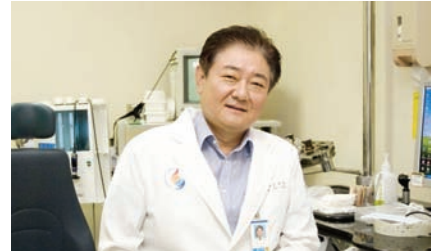
6월 21일, 인하대병원은 한국화재보험협회로부터 '2012년도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선정되어 인증서와 인증패를 전달받았다. 이는 지난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실시된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그 안전성이 우수함을 인정받았기에 이루어진 성과이다.

인하대병원, 어린이재단(인천지부)과 함께 '제9회 희망을 나누는 하루' 실시



7월 12일, 어린이재단 인천지부와 함께 '제9회 희망을 나누는 하루' 행사를 진행했다. 인하대병원은 본 행사에 후원을 통해 인천지역 1,600여 명의 소외된 아동들을 돕는데 힘을 보태었으며, 어린이재단과 한마음이 되어 지역 소외아동들을 돕고자 노력할 것이다. 특히 어린이재단과 인하대병원은 우간다 해외의료봉사, 소외아동지원사업 등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비인후과 김영모 교수, 국제학술대회 특별 연자로 초청 강연



6월 10일, 이비인후과 김영모 교수는 대만 두경부학회에서 개최한 국제학술대회에 특별 연자로 초청받아 '타액선 재생'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본원 이비인후과는 침샘질환 및 타액선 내시경술에 있어 우수한 연구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김영모 교수의 침샘질환연구는 2012년 상반기 교육과학부 연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류마티즘센터장 박원 교수, 2012년 유럽 류마티스학회에서 최신 지견 발표



6월 8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12년 유럽 류마티스학회 (EULAR: The European League Against Rheumatism)에서 류마티즘센터장 박원 교수가 세계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인 CT-P13의 임상시험결과를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CT-P13이 강직성 척추염과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 infliximab과 비교해서 유효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동등함을 보였다.

이비인후과 김규성 교수, 해외 학회서 각종 최신 지견 발표

이비인후과 김규성 교수는 6월 26일 노르웨이 트론헤임시에서 열린 제20회 국제자세보행연구학



회(International Society for Posture & Gait Research)의 심포지움 연자로 초청되어 어지럼 기능검사 중 하나인 전정유발근전위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7월 4일 중국 칭타오시에서 열린 제2회 국제융합기술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vergence Technology)의 기조연설자(Keynote speaker)로 초청되어 '임상의사의 관점에서 바라본 의공융합연구(Convergence Research on Medicine & Engineering; Medical Doctor's Point of View)' 대하여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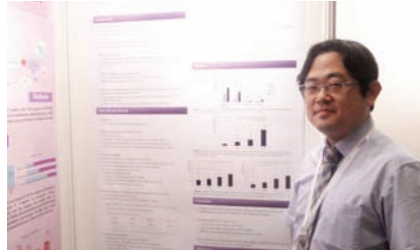
병리와 주영채 교수, 대한세포병리학회에서 학술장려상 및 KJP 세포논문 최다 게재상 수상



주영채 교수는 지난 6월 2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개최된 제14회 대한세포병리학회에서 학술장려상을 수상했다. 또한 KJP 세포논문 최다 게재상도 함께 수상하였다. 주영채 교수는 대한세포병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한세포병리학회 감사로 활동 중이다.

이비인후과 김영호 교수, 국제 학술대회 우수 포스터상 수상

이비인후과 김영호 교수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15회 아시아 비과 연구



심포지움(15th Asian Research Symposium in Rhinology)'에 참석하여 '저온저습공기 자극 장치로 평가한 주관적 비특이적 과반응 척도의 임상적 유용성 (Usefulness of the subjective cold hyperresponsiveness scale as evaluated by cold dry air provocation)'이라는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하여, '우수 포스터상(Best Poster Award)'을 수상하였다. 해당 연제는 국제공인 학술지(SCI paper)인 '미국 알레르기 및 비과학회 저널(American Journal of Rhinology and Allergy)' 최근호에 게재되었다.

이비인후과 고병윤 전공의, 대한평형의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



6월 3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개최된 '2012년 대한평형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본원 이비인후과 고병윤 전공의는 '한국인에서 안저촬영으로 측정된 안구회선의 연령 및 성별 정상치'라는 주제의 논문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교신저자 김규성 교수). 본 연구 논문은 대한평형의학회지에 게재되었다.

호흡기내과 전상훈 전공의, 미국흉부학회에서 'Travel Grant Award' 수상

5월 18일부터 6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국흉부학회(American Thoracic

Society)'에서 본원 호흡기내과 전상훈 전공의가 Travel Grant Award를 수상했다. 미국흉부학회는 흉부질환 관련 학회 중 가장 큰 규모의 학회이며, 전상훈 전공의는 '폐암환자에서 임상지표를 이용한 예후 모델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연제 발표를 하여 논문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인하대병원 류정선 교수(폐암센터, 호흡기내과)와 황승식 교수(사회위학과) 공동으로 진행된 이 연구는, 본원에서 진단된 800명의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예후예측이 가능한 다양한 후보 임상지표들을 검토/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임상지표를 이용한 폐암환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최초로 마련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왼쪽부터 전상훈 전공의, 황승식 교수, 류정선 교수)

소아청소년과 강희숙 간호사, 제 17회 환경의 날 맞이하여 인천광역시 표창 수상



6월 5일, 소아청소년과 강희숙 책임간호사는 인천광역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제17회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인천광역시 표창장을 수상했다. 특히 인천광역시 도서지역을 방문하여 주민을 위한 환경성질환 진료 및 검사, 교육 강좌 등을 통하여 지리적으로 소외받는 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및 환경성 질환에 대한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다.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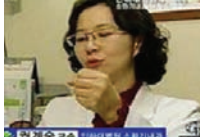
명칭의

2012. 5. 28



출연: 조영업 교수/외과
프로그램: MBC '생방송 오늘아침'
내용: 갑상선암의 이해와 치료

2012. 5. 28



출연: 권계숙 교수/소화기내과
프로그램: 채널 A '종합뉴스'
내용: 과민성 대장증후군

2012. 5. 30



출연: 강성모 교수/안과
프로그램: 남인천방송 '생활정보 리빙유'
내용: 올버렌 렌즈 착용법

2012. 5. 23



출연: 신정현 교수/피부과
프로그램: T-broad 인천방송 '6시뉴스'
내용: 자외선과 피부

2012. 6. 5



출연: 임중한 교수/직업환경의학과
프로그램: SBS '모닝와이드'
내용: 식당 물수건 의 안전성

2012. 6. 5



출연: 최광성 교수/피부과
프로그램: 남인천방송 '생활정보 리빙유'
내용: 탈모의 원인과 치료

2012. 6. 16



출연: 김창환 교수/재활의학과
프로그램: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내용: 수전증의 원인과 치료

2012. 6. 16



출연: 홍영진 교수/소아청소년과
프로그램: 메디컬TV '메디컬 뉴스'
내용: 백일해의 원인과 치료

2012. 6. 18



출연: 진희수 교수/안과
프로그램: SBS 백세건강스페셜
내용: 당뇨망막병증의 이해

2012. 6. 28



출연: 이현규 교수/혈액종양내과
프로그램: MBC 라디오 '지금은 라디오 시대'
내용: 백혈병의 치료

2012. 7. 6



출연: 김순기 교수/소아청소년과
프로그램: MBC TV '밥상 꾸러기 식사교실'
내용: 소아의 영양과 성장

2012. 7. 10



출연: 윤승환 교수/신경외과
프로그램: KBS 2TV '굿모닝 대한민국'
내용: 경추관 협착증의 증상과 치료

2012. 7. 14



출연: 윤정호 교수/치과
프로그램: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
내용: 치주질환과 임플란트

2012. 7. 17



출연: 변지원 전임의/피부과
프로그램: KBS 2TV '굿모닝 대한민국'
내용: 피부암의 오해와 진실

2012. 7. 23



출연: 최호석 교수/이비인후과
프로그램: KBS 2TV '굿모닝 대한민국'
내용: 중이염의 원인과 치료

파랑새 소식

파랑새 체육대회

5월 22일 인천대공원 야외음악당에서 파랑새 체육대회가 열렸다. 회원 100여 명과 여성암센터 소장인 조영업 교수님 여성암센터 직원 모두가 참석하여 건강달리기, 공치기, 훌라후프 경연대회, 장기자랑 등을 하면서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운동이 좋은가 서로 이야기하며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파랑새 야유회

6월 28일에는 계양산 힐타에 모여 야유회를 했다. 삼삼오오 모여 담소도 나누고 치료에 좋은 정보도 교환하며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청량음료를 마신 것 같은 시원함을 느끼는 좋은 시간이었다.

- 8월은 휴가 기간입니다. 파랑새 여러분 뜨거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 ▶문의 여성암센터 ☎ 032-890-2560 ▶홈페이지 www.inha.com ▶여성암센터
- ▶카페 cafe.daum.net / inhabluebird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 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항암제를 맞는 환자 및 보호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암 화학요법이란 무엇인가? 항암 화학요법의 부작용과 대처방안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환자의 식사요법 	매주 1회 (교육 신청시 안내)	3층 암센터	암센터 (032)890-2580
유방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방암 환자의 식이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임파부종 관리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 신청) 	8/9(목), 9/12(수) 오후 2시 ~ 4시	3층 1 세미나실	여성암센터 (032)890-2560
대장암 환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장암의 이해 대장암 환자의 영양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매월 넷째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2 세미나실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3638

공개강좌 안내

전시 일정	제목	강사	장소
2012. 08.27(월) - 오후 1시	일반인을 위한 치과교정상식	치과 박선형 교수	인하대병원 3층 강당
2012. 08.30(목) - 오후 2시	바캉스 후 피부관리	피부와 신경현 교수	인천 신세계 백화점 내 신세계 아카데미
2012. 09.14(금) - 오후 2시	신생아 예방접종 및 발달과정	소아청소년과 전용훈 교수	
2012. 09.20(목) - 오전 11시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내과 정경희 교수	
2012. 09.27(목) - 오후 2시	대장암의 날 건강강좌	외과 최선근 교수	인하대병원 3층 강당

●문의 : 신세계아카데미 ☎ 032-430-1501 / 인하대병원 교육수련부 ☎ 032-890-2642

전시회 안내

전시 일정	제목	참여 단체 / 작가	장소
2012. 08. 04 ~ 2012. 08. 18	하심회오픈부스전	양금선 외 5인	2층 갤러리
2012. 08. 18 ~ 2012. 09. 01	한국산악사진가협회전	한국산악사진가협회	2층 갤러리
2012. 09. 01 ~ 2012. 09. 22	전연일 개인전	전연일	2층 갤러리

●문의 : 홍보팀 ☎ 032-890-2608 ●일정은 참여단체 또는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조성

◆ 후원방법

- ① 약정서 작성_ 방문,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연락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납부방법_ 일시납 혹은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입금 : 하나은행 748-910002-39804 (예금주: 인하대병원)
 - ▶ 자동이체(CMS) :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서비스입니다(정기출금일: 15일, 25일).
 - ▶ 급여공제(교직원에 한함) :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 방문납부 : 인하대병원 지하2층 행정지원실 내 발전기금팀
- ◆문의사항_ 궁금하신 내용은 발전기금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EL : 032)890-3390/3391 FAX : 032)890-3000 e-mail : inhadt@inha.com

기부자현황 2012

일자	기부자	약정액	기금명	비고
07. 20	차상익(오광화원 대표)	100,000,000	병원발전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3기
07. 20	이천규(부일교통 대표)	50,000,000	병원발전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5기
07. 20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5기일동	20,000,000	병원발전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완납)
07. 20	최종식(인일자동차공업사 대표)	10,000,000	병원발전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5기 (완납)
07. 20	김의복(단건축사사무소 대표)	5,000,000	병원발전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5기 (완납)
07. 20	한양희(청명 Tax&Labor 대표)	5,000,000	병원발전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5기 (완납)
07. 20	김기주(아델산업개발 회장)	1,000,000	병원발전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5기 (완납)
07. 20	박성철(약진이메디스 이사)	1,000,000	병원발전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5기 (완납)
07. 20	배경숙(서울보증보험 조은대리점 대표)	1,000,000	병원발전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5기 (완납)
07. 20	이정환(더블파이브 대표)	1,000,000	병원발전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5기
07. 20	백재민(보광토탈이엔지 대표)	1,000,000	병원발전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5기 (완납)
07. 20	김용연(영어법인 호진수산 대표)	1,500,000	병원발전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5기 (완납)
07. 20	박남원(랜드마크 대표)	1,500,000	병원발전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5기 (완납)
07. 20	이인철(용현운수 대표)	10,000,000	병원발전	건강문화최고경영자과정 2기 (완납)
일자	기부자	기부품	기금명	비고
07. 20	인천백세요양병원	LCD 42인치 TV	병원발전	7병동 휴게실 설치

총괄현황

기부자	2012년 7월 30일 현재	
	약정액	납입총액
326명	1,395,257,798	1,049,973,292

인하대병원 진료안내

2012. 8. 1 현재

- 대표전화 1600-8114(전국)
- 외래진료예약 (032)890-2000
- 사이버나이프센터 (032)890-3076
- 종합검진센터 (032)890-3331
- 종합검진플러스센터 (032)890-3300
-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

● **창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창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신장내과 (2200)	박금수	*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낭질환	월	목	심장혈관센터 (22440~1)	신장센터 (22533)	김문재	*	혈액투석진료, 복막투석, 신장이식 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클리닉과 병행	
	권 준	*	관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심근증	수, 금	월, 화			이승우	*	혈액투석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김대혁	*	부정맥, 실신, 심박동기, 관동맥질환	월, 수, 목	수			송준호	*	혈액투석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우성일	*	관동맥질환, 심혈관중재술, 고혈압	화, 금	월, 수			신장이식클리닉 복막투석클리닉 (22535)	김문재	*		수		오후진료: 13:00~16:30 오전진료: 10:30~12:00
	신성희		휴진(2012. 7. 23 ~ 10. 20)				김문재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수			
	김수한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화, 금		이승우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목		
	일 반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수		송준호		*	혈액투석, 복막투석진료	화			
소화기내과 (2224)	김영수	*	간암클리닉, 간질환, 위내시경	월, 화, 목, 금		서비스진료 08:30~09:30 내시경센터 (22540~1)	혈액종양내과 (2219)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 폐암센터	
	신용운	*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목			이문희	*	해외연수(2012. 5~)				
	김형길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수, 금	월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수, 목		
	이돈해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목	화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목, 금	화	친자확인		
	권계수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박영훈			수	월, 목, 금			
	이진우	*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월, 목	월, 목		암센터 (22580)	김철수	*	혈액종양, 골수이식	화, 목			
	정 석	*	담도암, 췌장암, 담낭증, 담도·췌장질환, 위내시경	월, 금	화			이문희		해외연수(2012. 5~)				
	이정일	*	간암클리닉, 간질환, 간염, 간경변	화, 수	수, 금		감염내과 (22216, 2219)	이진수	*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화, 목	월, 화		
	방병욱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화	수, 금			백지현	*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월, 금	수		
	진영주	*	자궁간, 간염, 간암, 소화기질환, 담도·췌장질환	화	화		루마티즘센터 (22210~1)	박 원	*	관절염, 골다공증, 루프스	화, 수, 목	월		
나소연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월		권성렬	*		관절염, 혈관염, 베체트, 레이노	월, 목, 금	화, 목				
박현신	*	간, 소화관, 담도, 췌장질환	화		임미진			관절염, 척추염, 통풍	월, 목, 금	월, 수				
일 반					정경희			관절염, 강직성척추염, 통풍	월, 화, 수	화, 목				
호흡기내과 (2219)	이홍렬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화, 목, (금)	월, 수(2,4주), 금	▶ 폐암센터 (): 주별진료	알레르기내과 (22216)	김철우		천식, 만성기침,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 질환	월, 목	화, 목		
	곽승민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월, 화, 수, 목, 금	수, 목(1,3주)			남문석	*	임상약리/약동분석	월	화	정석빌딩 1층 임상시험센터내	
	류정선	*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월, 화, 목, 금	월, 목			김철우	*	임상약리/약동분석	수, 금			
	조재화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집중진료의학	수, 목	월, 화, 수, 목, 금			일 반	전체적인 내과진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남해성	*	호흡기질환, 폐종양, 만성폐질환	수, 금	화, 목, 금			내과계열반 외과 (22250)	김경래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월, 수	월, 목	
폐암 센터 (23890)	내과	이홍렬	*	폐종양	금	▶ 폐암센터 삼선초지점사	외과		홍기천	*	혈관이식외과	화	월, 목	
		곽승민	*	폐종양	수			안승익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류정선	*	폐종양	화, 목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 목	화		
	흉부외과	이현규	*	폐종양	월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수, 목	월, 목			
		남해성	*	폐종양	화, 금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수	금			
		김경택	*	폐종양	월		허윤석	*	소화기외과, 위	화, 목	화, 목			
		윤용한	*	폐종양	수, 금		최선근	*	소화기외과, 대장항문질환	화, 목	금			
정신건강의학과	김영삼	*	폐종양	수	금	최윤미	*	소아외과	수, 목	월, 수				
	최해진		불안장애	화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목				
당뇨내분비센터 (23360, 2215)	김용성	*	당뇨병, 비만, 내분비	월, 화, 목, 금	목	▶ 폐암센터 삼선초지점사	신경외과 (22370)	박준용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화, 목	월, 목		
	남문석	*	당뇨병, 뇌하수체, 내분비	화, 수, 목				박현천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월, 수	수		
	홍성빈	*	골다공증, 내분비, 갑상선(당뇨병)	목, 금	월, 화, 수			김은영	*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월, 목, 수, 목	월, 목, 수		
	김소현	*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월, 수	화, 수, 목, 금			박현선	*	뇌종양, 경동맥질환,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월, 화, 목, 목	목, 목		
비만 내분비내과 센터 (23360, 2215)	내분비내과	김용성	*	당뇨비만(성인)	목	▶ 폐암센터 삼선초지점사	흉부외과 (22280)	백완기	*	심장질환, 혈관질환	금	화		
		김소현	*	성인비만, 대사증후군, 2형당뇨병	수			김정택	*	심장, 혈관, 정맥류, 폐질환	월, 목, 목	월		
	산부인과	박지현	*	여성비만, 산후비만	월			윤용한	*	폐, 종격동, 식도,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화, 목	목, 목		
		외과	최윤미	*	BMI 30 이상 고도비만환자		수	김영삼	*	폐, 식도질환, 다한증, 흉곽기형	수, 목	수, 목, 목		
성형외과	최윤미	*	BMI 30 이상 고도비만환자	수		신경외과 (22370)	김은영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화, 목	월, 목			
	김연수	*	재활흡입술, 유방축소, 유행하수정술, 복부성형술	수			박현선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월, 수	수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소아	김순기	*	소아비만	금	▶ 폐암센터 삼선초지점사	정준호	김은영	*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월, 목, 수, 목	월, 목, 수		
		이지은	*	소아비만상담, 종합검사, 식이요법, 운동요법	목			박현선	*	뇌종양, 경동맥질환,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월, 화, 목, 목	목, 목		
	가정의학과	이연진	*	인지행동요법, 체중감량 후 체력증진	월			윤승환	*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사이버나이프, 척추측만증	수	월, 수		
신장내과 (2229)	김문재	*	신장질환, 고혈압	월, 목	화	▶ 폐암센터 삼선초지점사	심유식	오창현	*	머리외상, 두통, 뇌혈관질환	금	금		
		이승우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화, 금			월, 수, 목	화	화				
		송준호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화, 수			월, 목, 금	화	목				

토요일 오전진료는 심장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류마티스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피부과만 가능하오니 기타 진료과의 응급환자는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의 사정에 따라 진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정형외과 (☎2380)	박승림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추만증, 골다공증		수		이비인후과 (☎2420)	장태영	*	수면무호흡, 비파, 코(성형), 알레르기	수, 목	월	코성형: 수요일	
	문경호	*	인공관절성형술(고관절, 슬관절), 골다공증, 관절염	화, 목	화	김영모		*	두경부종양(목), 음성언어(편도X)	월, 화, 목				
	김영구	*	슬관절 인공관절(스포츠외과, 건관절, 스포츠외과), 관절염	월, 수	수	김규성		*	어지럼, 난청, 인공와우이식, 중이염, 편도	월, 수	수(△)	△어지러움증클리닉		
	강준순	*	슬관절 인공관절(기초술, 고관절, 재술, 전절골, 골다공증)	월, 수	월	최호석		*	중이염, 난청, 보청기, 인공와우, 편도	화	수, 목			
	김려섭		연구년: 12, 8, 1~13, 1, 31			임재열		*	두경부종양, 갑상선, 음성장애, 편도	금	화, 금			
	조규정	*	척추질환, 디스크, 척추추만증, 골다공증	월, 금	수	김영호			소아이비인후과, 편도, 수면무호흡, 비파	금	월, 금			
	이동주	*	상지, 수부, 중앙, 관절염	목, 금	화	최정석			두경부, 소아이비인후과, 편도, 후두암, 성악, 성대, 구강질환	화	화, 목			
	김범수		족부, 족관절, 외상	수	수, 금	일 반				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권대규		소아정형, 뇌성마비, 중앙, 외상	화	월, 목									
	이종민		슬관절 인공관절(스포츠외과, 건관절, 스포츠외과), 관절염, 외상		금									
성형외과 (☎3870)	황 건	*	얼굴외상 및 골절, 흉터성형술	화, 목	화, (목*)	◆입술, 입천장임플란트 ★유방재건클리닉	정신건강의학과 (☎3880)	강민희	*	정신분열병, 우울증, 알콜중독, 노인성정신장애	수, 금	월, 화	우울조율병클리닉	
	김연수		유방재건, 유방성형, 미용수술, 피부양생이체거	월, 수, 금	(월*), 수(▲)	★유방재건클리닉 ■비만클리닉(외과)에서 진료		김철웅	*	난치성 정신분열병, 외상성장애, 불안장애, 조경정신병	월, 목	수, 목	조경정신병클리닉	
피부과 (☎2230)	최광성	*	모발, 모발이식, 조갑질환	월, 화, (목), 금	(화△), 목	■모발 및 모발이식클리닉 □피부노화클리닉 ■피부미용색소클리닉	신경과 (☎3860) 만15세이상 진료가능	하충건	*	운동장애, 퇴행성질환	화, 수	(수△), 목	△운동장애클리닉	
	신정현	*	피부암, 피부미용외과, 피부노화	수, 금	(월), 화, (수), (목)	◆피부미용/비용외과클리닉 ★홍터/레이저클리닉 △피부미용레이저클리닉		나정호	*	뇌혈관질환, 뇌졸중	화, 목	월, (목)	■뇌졸중클리닉	
	송희진		피부암, 피부미용외과, 피부노화	(월), 화, 수, (목)	금	◆피부미용/비용외과클리닉 ★홍터/레이저클리닉 △피부미용레이저클리닉		최성태	*	치매, 기억장애	월, (수), 금	수	◆기억, 언어장애클리닉	
	변지원		피부암, 피부미용외과, 피부노화	목, (금△)	월, 금	◆피부미용/비용외과클리닉 ★홍터/레이저클리닉 △피부미용레이저클리닉		박회권	*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월, 수, (금)	금		
비뇨기과 (☎2360)	서준규		성기능장애, 여성배뇨장애, 불임	월, 수	수	(): 주별진료	재활의학과 (☎2480)	정한영	*	뇌졸중(중풍),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보행마비	월, (금)	수	■뇌졸중마비클리닉	
	박원희	*	요실금, 중앙, 전립선질환	화, 금	화, 금(4주)			김찬환	*	근골격계통증(오통, 오십견), 말초신경병변	화, 수	(수), 목	◆중풍마비 재활클리닉	
	윤상민	*	중앙, 결석, 신이식	화, 금	화, 금(3주)			김명옥	*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목	월, 화, (목), (금)	★언어장애 △척추클리닉(1,3주)	
	성도환	*	중앙, 결석, 전립선질환	월, 목	목, 금(5주)			일 반			월, 화	월, 화, 목, 금	만15세 이상 진료가능	
	이택	*	소아배뇨, 소아 및 성인배뇨장애, 아노증	목	월, 목			정한영	*	뇌졸중(중풍),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보행마비	월, (금)	수	■뇌졸중마비클리닉	
	류지간	*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비뇨기외상	수	월, 수, 금(2주)			김찬환	*	근골격계통증(오통, 오십견), 말초신경병변	화, 수	(수), 목	◆중풍마비 재활클리닉	
산부인과 (☎2270)	주관엽		비뇨기종양, 비뇨기검역, 일반비뇨기질환	월	금		김명옥	*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목	월, 화, (목), (금)	★언어장애 △척추클리닉(1,3주)		
	이병익	*	중앙학, 불임·폐경기	수, 목, 금	월	◆여성암센터	가정의학과 (☎2240)	최지호		가족간강관리, 금연	월, 화, 목	화, 수, 금	간진센터	
	송은섭	*	부인과종양	월, 수, 목, (금)	수	△비만센터		이연지		항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월), 수, 금	월, 목(△)	△비만센터	
	황성욱	*	중앙학, 복강경	(월), 화, (목), 금	수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수, 목, 금(△)	
	박지현	*	주산기학, 산과초음파	월, 수	(월), 수, 목			박홍재		일반내과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현민경		주산기학, 산과초음파	화, 목	화, 금		이두익			통증치료	화, 수, 목	화, 목			
박정우		부인과종양	월	월, 화(△), 수, 금		차영덕		통증치료 연구년: 12, 3, 1~	화, 수, 목	화, 목				
여성 안 과 In soo	산부인과	송은섭	*	부인과종양	화, 수, 금		영상의학과 (☎2740)	김원홍		HiFU 초음파 치료	월, 수	월, 화, 수, 목		
	외과	황성욱	*	중앙학, 복강경	월, 목			조순구	*	중재적 방사선학	월, 수, 목	월, 수		
		박정우		부인과종양		화		전용선	*	중재적 방사선학	화, 금	화, 금		
	성형외과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3070)	김우철	*	소화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유방암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사이버나이프센터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김현정	*	유방암, 비뇨기과암, 두경부암, 부인암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치료원 확대(2시간)투사
	영상의학과	김연수	*	유방재건	(월*)	★유방재건클리닉		일 반			금	월, 화, 목		
		김윤정	*	유방방사선학	(수, ▲)	■맘모토시술		사이버 나이프 중앙학과 센터 신경외과 (☎3076)	김우철	*	소화기암,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유방암	월	화	
	최혜진		불안장애	(화△)	◆중앙스트레스클리닉	김현정			*	유방암, 비뇨기과암, 두경부암, 부인암	월, 목	월, 목		
	내분비내과	홍성빈		갑상선 검사	(화△)	△갑상선초음파조직검사		박현선	*	뇌졸중, 뇌혈관기형	화	목		
		손병관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질환	월	목		윤순환	*	척추, 척수, 원발성종양		금		
소아청소년과 (☎2260)	홍영진	*	심장, 감염	수, 목	월	만15세까지 소아과진료 □비만센터	핵의학과(☎3160) 직업환경의학과 (☎2861)	현인영	*	동위원소치료	월, 화, 목	월, 화, 목		
	김순기	*	혈액, 중앙,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	월, 화			임종한		환경성질환, 화학물질관리, 직업성호흡기질환, 고엽제		화, 목		
	전유훈	*	신생아, 미숙아, 발달	목, 금	화, 수			박신구		직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사업장 보건관리		월, 금		
	임대현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화, 금	월, 수			김환철		뇌, 심혈관질환평가 및 관리, 업무재활평가, 업무관련성평가	월, 수	수		
	김정희	*	알레르기, 호흡기, 면역, 결체조직	월, 화	수, 목			김일규		구강악안면외과, 임플란트, 매시	월, 화, 수, 목, 금	화, 목	★임플란트클리닉	
	권영세	*	신경, 뇌전증(간질), 두통	월, 화	목, 금			오남식		보철과,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화, 목, 금	월(▲), 화, 금		
	이지은	*	치과(소아), 치과(성인), 장애인, 내분비질환, 신경질환	수, 목	화, 목, 금	오후진료: 비만센터 14:00~16:00		윤정호	*	치주과	월, 목(▲), 금	월, 화, 목		
	김동현		감염		월, 화, 금			박찬운		보철과	토	월, 화, 목		
안과 (☎2400)	일 반			화, 수, 목, 금	수		손선정		보조과	월, 화, 목	화, 수, 목, 금			
	오종협	*	백내장, 녹내장	월, 목	화, 금	항공기수무원진료클리닉	박선형		교정과	월, 수, 목, 금	월, 수, 금			
	문연성	*	연구년: 12, 8, 1~10, 31				조현영		구강외과	수, 목	월, 화, 수, 금			
	진희승	*	망막, 유리체, 백내장	금	월, 수		일 반			월, 화, 수, 목, 금, 토	월, 화, 수, 목, 금			
안과레이저(☎2400)	강성모	*	안성형, 사시	화, 수	목		응급의학과(☎2301)	일 반	응급의학, 약물중독	월, 목	월, 목			
	김내래		녹내장, 백내장	화, 금	월									
김내래		일 반	월, 수, 목, 토	화, 수, 목, 금										

★ : 사이버나이프센터 ◆ : 비만센터 □ : 여성암센터 ■ : 폐암센터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선택진료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목	8:130~09:30 서비스진료	갑상선암	내분비내과	김용성	*	갑상선, 당뇨병, 비만	월, 화, 목, 금	목	여성암센터(갑상선 조직검사)									
		김형길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수, 금	월				화, 수, 목														
		관계속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목, 금	월, 화, 수													
		방병욱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화	수, 금				월, 수, 화, 금														
		외과	신석환	*	위암, 소화기외과	월, 목					월, 화, 목, 금													
	종양내과	하윤석	*	위, 위암, 소화기외과	(화◆)	화, 목			조영업	*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유방, 부신종양	월, 화, 목, 금		수, 목, 금		월, 화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김세중	*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유방	(수□, 금□)	(월□)											
		이문희	*	해외연수(2012. 5 ~)					김영모	*	갑상선, 두경부종양(목), 음성언어(편도X)	월,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임재열	*	갑상선, 두경부종양, 음성장애, 편도	금	화, 금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현인영	*	갑상선암, 동위원소치료	월, 화, 목	월, 화, 목											
대장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대장암, 위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목	8:130~09:30 서비스진료	유방암	외과 (여성암센터)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맘모통									
		김형길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대장질환	수, 금	월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관계속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수□, 금□)	(월□)													
		방병욱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화	수, 금					김윤정	*	유방방사선학	(수□)										
		외과	김경래	*	대장항문질환, 소화기외과	월, 수					이문희	*	해외연수(2012. 5 ~)											
	종양내과	최선근	*	대장항문질환, 소화기외과	화,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이문희	*	해외연수(2012. 5 ~)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목, 금	화			김연수	*	유방재건, 유방성형	월, 수, 금	(월, 수)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부인암	산부인과	이병익	*	종양학, 불임, 폐경기		수, 목, 금	월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송은선	*	부인과종양	(월, 화, 목, 금)												
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김영수	*	간암클리닉, 간질환, 위내시경	월, 화, 목, 금		서비스진료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황성욱	*	종양학, 복강경	(월, 화, 목, 금)		비노기암	비노기과	박원희	*	종양, 전립선질환, 요실금	화, 금	화, 금(4주)	(): 주별 진료		
		이진우	*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월, 목	월, 목					윤상민	*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결석	화, 금			화, 금(3주)							
		이정일	*	간암클리닉, 간질환, 간염, 간경변	화, 수, 금	수, 금					성도환	*	종양, 결석, 전립선질환, 결석	월, 수			수, 금(2주)							
		외과	안승익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이문희	*	해외연수(2012. 5 ~)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수	금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목, 금			화							
	종양내과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금	화, 금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췌·담도 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돈행	*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목	화, 목	(): 주별 진료	두경부암	이비인후과	정 석	*	담도암, 췌장암, 담석증, 담도확장질환, 위내시경	월, 금	화	정신재로 클리닉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최혜진	*	불안장애	화, 목	화, 목	■ 13~15시 ■ 15~18:30		
		안승익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김영수	*	척추수상, 언어장애, 발통증, 인지보조기	목			월, 화, 금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수	금					최광성	*	모발, 조갑질환, 여드름, 모발시, 피부부종, 레이저	월, 화, 금			목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목					신정현	*	이도피부염, 알러지, 뽕증, 두드러기, 피부부종, 레이저	수, 금			화							
		종양내과	이문희	*	해외연수(2012. 5 ~)						송희진	*	피부암, 백반증	(월, 화, 수)			수	■ 0:00 파암내과 클리닉						
	방사선종양학과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금	화, 금				이문희	*	해외연수(2012. 5 ~)				뇌종양	신경외과	김은영	*	뇌종양, 뇌관, 뇌실, 뇌수막염, 뇌염, 뇌전증, 뇌신경, 뇌하수체, 뇌혈관질환, 뇌영상, 뇌진탕, 뇌외상, 뇌동맥류, 뇌종양, 뇌신경, 뇌염, 뇌전증, 뇌수막염, 뇌신경, 뇌하수체, 뇌혈관질환	(월, 수, 목)	수, 목(★)	▲ 뇌종양, 인면경증, 삼차신경클리닉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목, 금	화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은영	*	척추수상, 언어장애, 발통증, 인지보조기	목	월, 화, 금										
폐암	호흡기내과	이홍렬	*	폐종양,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화, 목, (금)	월, 수(2,4주)	(): 주별 진료	피부암	피부과	곽승민	*	폐종양,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월, 화, 수, 금	수, 목(1,3주)	연부조직 및 골육종	정형외과	강준순	*	골종양, 인공관절성형술, 고관절, 슬관절, 관절염	월, 수	월			
		류정선	*	폐종양,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이동주	*	종양, 상지, 수부, 관절염	목, 금			화							
		조재호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진중진료의학	수, 목	월, 화, 수, 목(2,4주)					권대규	*	종양, 상지, 수부, 관절염	화			월, 목							
		남해성	*	폐종양,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수, 금	(화), (금)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흉부외과	김정택	*	폐질환, 심장, 혈관, 정맥류	월, 목, 목				월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목, 금	화						
	종양내과	윤용한	*	폐, 종격동, 식도, 다한증, 기흉, 흉곽기형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수)	수,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은영	*	척추수상, 언어장애, 발통증, 인지보조기	목	월, 화, 금										
흉부 관련암	흉부외과	김정택	*	심장, 혈관, 정맥류, 폐질환	월	월, 목(■)	척추종양	신경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윤용한	*	폐, 종격동, 식도, 다한증, 기흉, 흉곽기형	화	목(■)	연부조직 및 골육종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영삼	*	폐, 식도질환, 다한증, 흉곽기형	수	수, 금(■)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수)	수, 목(■)					김은영	*	척추수상, 언어장애, 발통증, 인지보조기	목			월, 화, 금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혈액암	혈액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척추종양	신경외과	방사선종양학과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화, 목, 수)	수, 목(■)	연부조직 및 골육종	정형외과	강준순	*	골종양, 인공관절성형술, 고관절, 슬관절, 관절염	월, 수	월
			김우철	*	소화기, 폐암, 뇌암, 두경부암, 혈액암, 유방암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이동주	*		종양, 상지, 수부, 관절염	목, 금			화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권대규	*		종양, 상지, 수부, 관절염	화			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목, 금			화				
소아암	소아청소년과	김순기	*	혈액, 종양,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	월, 목	척추종양	신경외과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연부조직 및 골육종	정형외과		강준순	*	골종양, 인공관절성형술, 고관절, 슬관절, 관절염	월, 수	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이동주	*	종양, 상지, 수부, 관절염	목, 금				화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권대규	*	종양, 상지, 수부, 관절염	화				월, 목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김한정	*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월, 목, 금				화					

인하대병원의 특별한 '내일' 을 만드는 가치기부

인하대병원 신관건립사업 - 국내 선도 특성화 센터

인하대병원 신관 건립사업은 초일류 의료기관의 표본을 제시하는 최첨단 병원으로 건립하고자 하며, 국내 Top 7 의료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 동시에 더 나아가 인천을 넘어 세계로 향하는 글로벌 의료기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신관은 중증·고령질환 전문병원 컨셉을 기반으로 국내 최고수준의 특성화 전문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특성화 전문센터에는 암센터, 심장·뇌·혈관센터, 류마티즘·관절센터 등을 배치하고, 최첨단 장비 도입 및 친환경 건축을 통하여 치유적 환경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시설개요

- 대지면적 : 약 5,467평
- 건축면적 : 약 2,000평
- 건물면적 : 약 26,000평
- 건축규모 : 지상 15층 지하4층
- 병상규모 : 약 600병상
- 준공예정 : 2016년 예정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 인하대병원을 사랑하고, 발전을 원하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 * 개인, 단체 및 법인 명의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금액은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 후원자께 정성을 다해 예우하겠습니다.

◆ 후원방법

- ① 약정서 작성 : 방문,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연락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납부방법 : 일시납 혹은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입금 : 하나은행 748-910002-39804 (예금주: 인하대병원)
 - ▶ 자동이체(CMS) :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서비스입니다(정기출금일: 15일, 25일).

- ▶ 급여공제(교직원에 한함) :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 방문납부 : 인하대병원 지하2층 행정지원실 내 발전기금팀

- ◆ 문의사항_궁금하신 내용은 발전기금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EL : 032)890-3390/3391 FAX : 032)890-3000 e-mail : inhadf@inha.com

첨단 진단장비 PET-CT & SPECT-CT



PET-CT

>> PET-CT

기존 PET-CT장비보다 월등한 해상력(병소의 크기가 작은 것을 찾아내는 정도)을 가졌으며 전신(Torso) 암 및 뇌 질환 위주의 검사 장비입니다. 촬영시간 15분, 2시간 이내 검사가 종료되고 방사선피폭량이 적습니다.

◆ 주요검사대상

- 암의 조기 및 전이 진단(두경부암, 폐암, 유방암, 대장암, 림프종, 자궁암, 난소암, 근골격계암)
- 재발암의 유무진단
- 뇌질환 진단 (뇌종양, 뇌혈관질환,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진단)

>> SPECT-CT 경인지역 최초 도입

인체 장기별 다양한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SPECT 장비보다 월등한 해상력(병소의 크기가 작은 것을 찾아내는 정도)을 가져 정확한 영상 진단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검사시 불안감을 해소한 첨단 장비입니다.

◆ 주요검사대상

- 장기들의 기능 및 단층영상
- 뼈 질환과 해부영상
- 감염 병소의 진단
- 골 질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및 암 진단

SPECT-CT

